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2020. 12.

목 차

1.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2.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원리	3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3
1) 협동조합의 정의와 기대효과	3
2) 협동조합의 정체성	6
3) 협동조합의 유형	10
2.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조건	13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13
2)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15
3. 충남 협동조합 실태 분석	18
1. 협동조합 현황 개괄	18
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구분	18
2) 협동조합연합회	19
3) 유형별 분류	19
4) 조합원 수	21
5)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	21
2. 설립 및 운영 추정 협동조합 수	22
1) 연도별 설립추이	22
2) 설립 후 운영 협동조합 수	22
3. 충남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 현황	24
1)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구분의 필요성과 분류	24
2)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에 따른 특색	26
4. 경영 실태분석	34
1) 1억 이상 매출 규모 합계	34
2) 10억 이상 매출 규모	35
3) 5억 이상 10억 미만 매출 규모	35
4) 2억 이상 5억 미만 매출 규모	36
5) 1억 이상 2억 미만 매출 규모	36

5. 사회적 목적 유형 기반으로 한 실태분석	37
1) 전체 협동조합 대상	37
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41
6. 충남 협동조합의 우수사례	45
1) 교육분야	45
2) 농업분야	55
3) 유망 사업연합회의 사례	62
7. 충남 협동조합의 애로요인	66
1) 조직, 경영,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	66
2) 필요한 정책수요	68
8. 충남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만족도	69
1) 지원정책 만족도	69
2)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만족도	70
4. 협동조합 정책 환경 및 광역 자치단체 협동조합 정책 사례 분석	72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정책 과제	72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72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74
2.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정책과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76
1)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초와 한계	76
2) 협동조합 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7
3.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87
1)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요와 성과	87
2) 서울시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주요 내용	88
5.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제언	9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90
1)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목표	90
2)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방향	90
2.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방안	93
1) 기초 생태계 조성 전략	93
2) 스케일 업 전략	94
3) 충남형 협동조합의 확산 전략	97
4) 충남형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개발협동조합 추진	103
참고문헌	104
부록	105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협동조합은 시민참여형 기업으로서 고용과 소득, 복지와 공동체, 환경과 윤리적 소비 등의 복합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사회적 임팩트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도 올해 3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2)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협동조합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충청남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1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대도시와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지니고 있어서 충청남도의 특성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2020년 6월 말 기준 755개가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2단계 발전 전략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의 협동조합 자료 분석 및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아울러 협동조합의 스케일 업을 위한 방안, 권역별·업종별 형태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협동조합 발전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은 충청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협동조합의 개념, 유형 및 발전원리에 대한 문헌 조사 및 국내외 동향 분석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분석 및 타 광역자치단체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례 조사 분석
- 충청남도 협동조합 실태 조사 및 분석
- 충청남도 협동조합 우수 사례 수집 및 분석
- 충청남도 맞춤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 기재부 협동조합 데이터 및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 우수협동조합 사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전문가 FGI(Focus-Group-Interview)

2.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원리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 협동조합의 정의와 기대효과

- 협동조합의 종류가 다양하고 협동조합이 발생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관한 정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차이 점을 극복하고 협동조합 개념 규정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세계 협동조합조직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이 1895년 창립 이후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정하는 최종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음.
-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미 1937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음. 국제협동조합연맹은 급변하는 세계시장환경의 변화, 체제이행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협동조합의 변화, 지구적 차원에서 부각되는 각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을 채택하였음 (Macpherson, 1996).
- 국제협동조합연맹의 1995년 선언은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였는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의에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임.
 - 둘째, 협동조합은 ‘사람들(persons)이 결성한 조직’이라는 점임. 세계에서는 개인(individuals)만을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있는 반면, 회사와 같은 법인(legal persons)도 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위조합도 많이 있음.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이중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음. 어떤 경우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조합원(회원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셋째,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임.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함.
 - 넷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한 것임.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과 상호이익을 위하여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보통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함. 조합의 주된 존재이유는 경제적 목적의 충족이지만 그들은 사회·문화적 요구 또한 가지고 있음. ‘사회적’이란 의료보건 서비스나 육아 서비스의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뜻함.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또한 조합원의 관심사와 소망에 따라 문화적 목적도 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평화의 증진, 스포츠와 문화활동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조직과의 관계 증진 등이 있음. 사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지적·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다섯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임. 이는 소유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사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기업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조직체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임. 한편 개별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Laidlaw, 1980, p. 59)

-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제도방식의 기업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선구적 추진, 조합원간의 협동과 민주적 참여의 훈련, 동종 및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의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는 근저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
 - 첫째, 세계화 및 정보통신혁명으로 세계적인 생산과 분업체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구조적 실업과 양극화, 중소기업인들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둘째, 노령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휴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매우 차갑게 변질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3%에 불과한 바닷물의 소금처럼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견제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표 II-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들은 우리사회에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은 세계화 및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중소기업자의 자가 고용 및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국 빈부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더 나아가 빈부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마을카페, 마을식당, 마을학교, 학교매점협동조합, 도시텃밭협동조합, 공동주택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등 커뮤니티협동조합이나 자동차공유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신뢰 촉진형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표 1.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설립 목적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독과점 및 정보의 비대칭 등 시장실패의 보정자로서의 협동조합	주식회사로 운영될 경우 거래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데 비하여 협동조합은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장과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음: 소비자협동조합, 농협 등
세계화 및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자조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사업자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규모의 경제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
단기 이윤극대화, 비정규직 확대,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 등에 대응하는 하층 노동자협동조합 및 프리랜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고용의 질 제고 및 안정, 협력적 노동과 팀 기업가정신 제고, 평등한 소득 배분 등에 기여할 수 있음.
노령화, 공동체성의 파괴 등에 대응하는 커뮤니티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커뮤니티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통하여 행정기관이나 주식회사, 비영리기관 등보다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신뢰 제고에 기여

2) 협동조합의 정체성

- 협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기업소유형태의 독특성, 결사와 기업의 이중성, 협동조합섹터의 연대적 관계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협동조합 기업소유형태의 독특성은 이윤추구기업과 달리 기업의 이용자(patron)과 소유자의 일치성인데, 이용자가 협동조합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협동조합의 첫 번째 본질에서 비롯되는 결사와 기업의 혼종성은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목적성과 사회적 미션을 규정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의 원리와는 달리 협동조합섹터 내의 개별협동조합기업간의 관계는 경쟁 보다는 협력과 연대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임. 이 세 가지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가) 협동조합적 소유형태의 독특성

- 협동조합기업 소유형태의 독특성은 기업 이용자와 소유자의 일치성이라고 할 수 있음. 주식회사의 경우에 기업의 소유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자본투자자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자본이득 이외의 목적을 지닌 이해관계자가 소유하는 기업임.
 -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고용의 안정과 민주적인 기업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이 소유자이고, 소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소기업가들이 소유자임.
 -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생활의 안정 등 다양한 생활자의 목적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소유자이며,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예금서비스 및 대출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소비자임(〈그림 II-1〉 참조).
 -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목적, 환경적 목적 등을 지향하는 노동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유자임. 소위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일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용자와 소유자의 일치성이 현저히 약화되면 이를 협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장종익, 2019).
- 이윤추구기업과는 구별되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협동조합 기업의 소유자를 이용자로 제한하도록 하는 협동조합 고유의 조직적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시장경쟁여건 하에서 성공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즉, 협동조합의 사업이 조합원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을 비즈니스전략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소유관계로의 전환이 그들과 협동조합의 거래관계를 가격시스템에 주로 의존하는 시장거래관계에서 시장거래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 내 거래를 혼합한 거래관계(Williamson, 1996; Menard, 2007)로 전환하게 만든다. 예금자와 은행의 거래관계는 시장거래관계이지만 조합원예금자와 신협은 거래관계는 시장거래관계라고만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조합원예금자가 신협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소유은행과 예금자 및 대출자의 거래가 이자율 등 가격신호와 경쟁조건 등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신협과 조합원예금자 및 조합원대출자의 거래는 이자율 등 가격신호 및 경쟁조건뿐만 아니라 신협과 조합원간의 협의(consultation)와 조합원간의 협력 및 합의(cooperation and concensus)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소비자협동조합의 기업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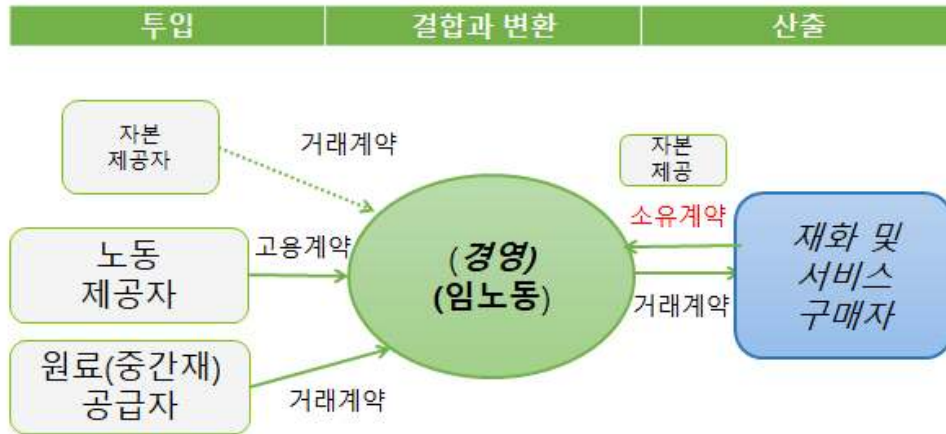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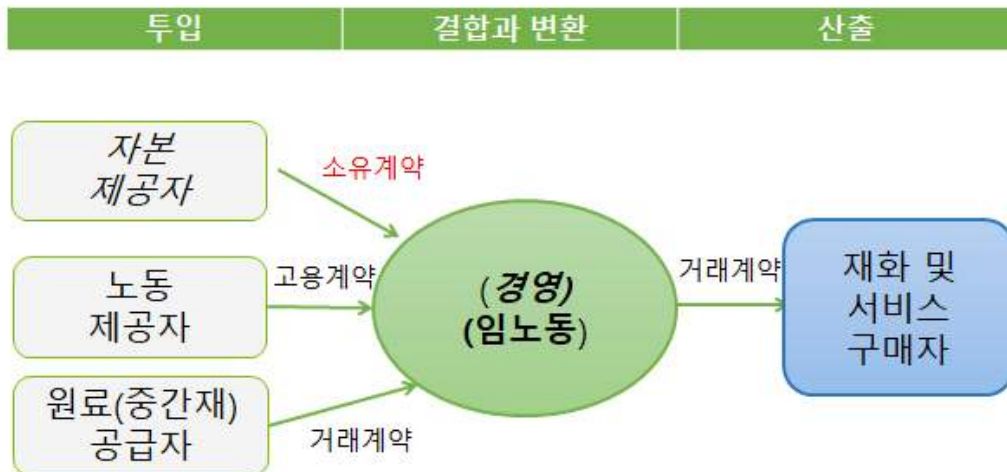


그림 2.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의 기업소유형태



나) 결사와 기업의 혼종성

- 협동조합 본질의 두 번째 요소는 결사와 사업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중적(duality) 특징임. 협동조합은 애로요인과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조직(association)이고 이러한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열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안적’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기업(enterprise)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과 결사적 성격이 협동조합의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협동조합을 둘러싼 오랜 논쟁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을 결사(association)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enterprise)으로 볼 것인가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의 협동조합 실천가이자 이론가였던 레이들로(Laidlaw, 1980)는 협동조합의 이중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p. 59

- 그리고 레이들로 박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 “사회적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 광범한 인간적·사회적 문제에 개입한다.
 -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진다.
 - 조합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사업에 협력한다.
 - 빈곤층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한다.
 - 공평하고 공정한 고용주로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법인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 인정받는다.
 - 제 3세계의 협동조합을 원조하기 위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p. 67

다) 협력과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섹터의 생태계

- 협동조합의 이중적 특징은 자연스럽게 개별 협동조합의 원자화보다는 네트워크화를 지향하도록 만들. 이는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개별 협동조합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사회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레이들로(1980)는 서기 2000년에 전 세계 협동조합섹터가 도전해야 할 과제로 식량문제의 해결과 기아의 극복,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창출, 보전자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등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하여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였다.
-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는 협동조합의 이중성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소유형태의 독특성에서 기인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천되었음. 대표적으로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200개 이상의 노동자협동조합이 모여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라는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내부자본시장과 내부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음(Irizar & MacLeod, 2010). 그런데 1천 여 명이 넘는 노동자조합원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집단적의사결정비용의 문제를 연합체 방식을 통하여 공동의 규칙과 의사결정의 위임범위를 정함으로써 상당히 해소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됨(Surroca , et al., 2006).
- 또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섹터는 동종협동조합의 수평적 네트워크나 수직적 네트워크, 이종협동조합 간 보완적 네트워크, 금융네트워크,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활동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분석됨(Menzani and Zamagni, 2010).
- 이러한 협동조합섹터 내의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의 관계는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주식회사 간 관계가 경쟁을 지향하는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3)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조합원이 어떠한 필요와 열망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작게는 19가지로 나뉘 볼 수 있음.

표 2. 주체 및 기능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

(주체)	소분류(분야 및 기능)
소비자 협동조합 (I)	생활재 공동구매 및 제조 (1)
	의료, 육아, 주택, 교육, 예술, 스포츠, 문화 공동구매 (2)
	전력·수도·통신서비스 공동구매 (3)
	시설 및 내구재 공동 이용 (4)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II)	농림수산업자의 공동구매·공동가공·공동판매(5)
	소공인의 공동구매·공동이용·공동판매(6)
	소매/음식/숙박업분야 소사업자의 공동구매·공동브랜드(7)
	운송 및 기타 서비스분야 소사업자의 공동구매·공동행정 사무(8)
프리랜서협동조합 (III)	방과후 교사, 강사, 컨설턴트, 방송출판, 작가, 문화예술인, 해설사, IT기술자, 건축가 등의 협동조합(9)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CAE)(10)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11)
노동자 협동조합 (IV)	운수업(12)
	제조, 건설, 유통·음식·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업, 법률, 컨설팅, 디자인, 문화, 예술, 의료, 플랫폼노동자협동조합(13)
금융협동조합 (V)	경제적 약자간의 자금의 상호융통 및 보험(14)
	협동조합사업체에 대한 투융자(15)
사회적 협동조합 (VI)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16)
	취약계층의 노동통합(17)
	지역재생, 대안에너지 개발, 환경·문화·예술 보전. 플랫폼협동조합(18)
	사회적 금융(19)

-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가 그 협동조합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가, 혹은 사업용 구매 및 판매를 위한 사업자인가, 아니면 그 협동조합의 노동자인가에 따라 대분류를 하고, 설립주체에 의해 구분하기 어려운 금융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비자협동조합은 농식품 등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는 가장 보편화된 생필품공동구매협동조합, 그리고 의료·육아·주택·교육·예술·스포츠·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소협과 전력·수도·통신서비스에서의 소협으로 나누어짐.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자동차공유협동조합 등은 시설 및 내구재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각기 사업체를 운영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사이에 위치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이 일감의 공동수주와 공동작업, 그리고 고용보험 등 공동복지의 추구를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혹은 직원협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자신의 고용안정과 질 좋은 노동환경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려는 사람들임.
- 다음으로 금융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의 자금의 상호융통을 도모하거나 위험의 공동화(pooling)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상업은행(cooperative commercial bank) 및 협동조합보험(cooperative insurance), 그리고 협동조합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융자해주는 협동조합투자은행(cooperative investment bank)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혹은 공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재생, 대안에너지 개발, 환경·문화·예술 보전,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한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커뮤니티형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앞에서 논의한 유형의 전통적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자익(self interest) 추구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경제적 약

자들이 개별분산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collective interest)을 향상시키고 참여와 이용고에 따라 그 이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익 추구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자익 추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조합에서는 단일한 이해관계자 그룹, 예를 들면 소비자 그룹 혹은 직원 그룹에 소유권을 배정하는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임(Hansmann, 1996).

-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이타주의(altruism)에 기초하고 있음. 즉, 기부, 자원봉사, 프 로보노 등 여러 주체들이 공동 생산(co-production)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재(public goods)를 효과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목적의 특성 상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자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한 거버넌스 비용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론됨.
- 이러한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협동조합 유형 분류에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자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이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채택할 경우에 이해관계의 조정 비용 등 거버넌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임(장종익, 2017).

2.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조건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문제점 혹은 주식회사 방식의 기업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불만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협동조합 기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조직 전략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야 함.
-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은 상대적인 단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협동조합 기업 방식이 지닌 상대적 단점은 대략 네 가지임 (장종익, 2014a).
- 첫째,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민주적 특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집단적 의사결정비용 문제는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필품공동구매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의 사업 및 투자정책, 그리고 잉여 및 손실의 배분정책이 조합원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협동조합 실천가들은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해왔음. 예를 들면, 조합원의 선호 및 이해관계가 이질적인 조합원 구성일수록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농협동조합, 양돈협동조합 등처럼 가급적 동질적인 조합원으로 조합을 구성하였음. 조합 내 갈등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연합회에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협동조합들이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리더 양성 교육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둘째, 협동조합은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에 의존하고 있고, 한 조합원의 편익은 다른 조합원의 출자 및 이용수준에 의존함.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때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초기에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그 이유는 창립주도 조합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창립주도 조합원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기제가 협동조합 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창립주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할 유인책을 찾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을 안정적 기반에 올려놓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¹⁾ 또한 협동조합은 시장경제 내에서 동종 업종의 기업들과 경쟁해

야 하는데, 경쟁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저렴할 때 조합원들이 이를 선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규칙과 조직 전략을 개발해오고 있음. 이용고배당원칙처럼 기여자 보상원칙에 입각해 최근에는 조합 사업을 보다 많이 이용해 편익을 많이 받는 조합원은 그에 상응하는 출자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과 이용고 비례 원칙을 도입하는 협동조합도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책정, 노동자협동조합에서의 직무의 배분 및 임금 책정, 잉여금 및 손실금의 배분, 조합원으로부터의 자본 조달 정책 등에 있어서 무임승차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협동조합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조합원의 자본투자 기피 경향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협동조합은 그 소유자의 자격을 조합 사업의 이용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그런데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조합 사업의 이용자들은 조합의 사업이 파산할 경우 소유자로서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크지 않음. 더욱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기업이 위협에 처할 경우 조합원들은 일자리도 잃고 투자금도 잃는 이중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음.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에의 자본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본제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돼 왔음. 유럽 대륙의 독일어권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무배당 및 적립금을 통한 공동재산 축적 원칙을 통해 기본적으로 자본 문제를 해결했음. 최근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적지 않은 나라들이 투자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조합 사업 이용자 이외에도 조합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스페인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 복합체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 연대기금의 조성, 현금배당의 금지와 적립금의 증대,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인민금고의 설립 등을 통해 개별 노동자협동조합의 파산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본출자 기피경향을 해소해 왔음.

○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는 조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자 통제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음.

○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조직을 설계하고 우호적인 제도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함.

1) 주식회사에서는 설립주주가 사업 성공 후 주식 상장을 통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성공한 협동조합의 현신적인 창립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존경이 중요한 보상 기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서술한 협동조합의 약점과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주체적 전략은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구조 및 기술의 특성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응용될 필요가 있음.

2)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한 나라의 협동조합섹터의 발전 수준은 개별 협동조합 주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태도와 제도적 지원수준, 그리고 협동조합 섹터의 연대 역량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를 ‘협동조합 공급생태계(ecosystem for cooperatives)’라고 지칭함.
- 혹자는 캐나다 퀘벡이나 이탈리아 볼로냐의 예를 들면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현상을 일반화한 오류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생존율이 높을 정도로 조직적 장점이 있다면 그동안 왜 주식회사가 보편화되고 협동조합은 소수로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지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되, 협동조합에 내재돼 있는 조직적 단점을 보완하는 공급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공급생태계의 첫 번째 요소는 제도와 정책임. 먼저, 헌법을 비롯한 법적 체계가 협동조합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최소한 주식회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 또한, 세제, 금융지원, 교육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협동조합의 장점, 즉, 평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신뢰를 촉진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장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함.
 -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이 고루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가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조세 제도, 금융 지원, 시장 접근 정책 등을 도입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 이탈리아 정부가 협동조합총연맹에 협동조합에 관한 감독 권한을 사실상 부여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이 발휘될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전략적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었음.

- 역시 다양한 분야와 유형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캐나다 퀘벡 주는 1985년에 지역 개발협동조합(Community Development Cooperatives) 지원정책을 시행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음. 1997년 협동조합기본법²⁾에 연대협동조합의 도입, 2003년 협동조합개발정책 시행, 2005년 퀘벡주협동조합총연맹(CQCM)과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 협약 체결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동조합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돼왔음.
 - 특히 퀘벡의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충분히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정책을 통해 발휘된 효과는 국제연합(UN)이 2009년 ‘세계협동조합의 해(2012)’를 결의하고 각국에 협동조합의 발전에 우호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권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음.
 -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실천적으로 연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는 2002년 권고 제193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³⁾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법률과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ii) 연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 iii)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 iv) 회계 및 감사 서비스, v) 법률 및 세무서비스, vi) 마케팅 지원서비스 등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 시스템, 세제 우대 조치, 협동조합 설립 초기단계에서의 경영 컨설팅 및 인적 자원 개발 서비스 등이 협동조합의 생존을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두 번째 요소는 협동조합섹터의 연대역량이 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개별 협동조합이나 각 유형별 협동조합부문 간의 협동을 촉진하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대를 통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전략적으로 탄생시키고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협동조합섹터의 조직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은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구조와 총연합회 구조를 지닌 나라로 구분됨.
 - 협동조합총연합회가 발전한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몬드라곤, 독일, 캐나다 퀘벡주가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구조를 지니고 있음. 특히,

2) 퀘벡주의 협동조합법(Cooperatives Act) 영어버전은 퀘벡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C_67_2/C67_2_A.html

3) R193 -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 원문은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R193

한 나라의 모든 부문의 비사업연합회와 사업연합회가 모두 가입한 연합회를 협동조합중앙조직(apex or umbrella organization), 또는 3차 협동조합(tertiary cooperative)이라고 지칭함.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협동조합중앙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대 활동은 협동조합센터 내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기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때 성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최근에 윤리은행, 사회적은행이 등장하고, 저개발국가와의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이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들과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실천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과 새로운 흐름에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경제협의회를 만들어나가는 지역과 나라가 늘어나고 있음.
 - 예를 들면 프랑스의 사회적경제협의회(CEGES), 스페인의 사회적경제연합회(CEPES),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경제협의회(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Économie sociale Québec)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그러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및 비사업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도록 세제 및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케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문연합회 혹은 총연합회,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연합회와 협력하여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곳에 협동조합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생태계는 개별 협동조합의 사업리스크, 금융리스크, 관계리스크 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 협동조합 혹은 부문 협동조합의 이기주의를 줄이고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

3. 충남 협동조합 실태 분석

1. 협동조합 현황 개괄

-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의 설립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신고,수리된 협동조합으로 분석함.
- 전국과 비교한 데이터는 12월 11일 기준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 자료를 토대로 함.

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구분

- 일반협동조합(639, 91.9%), 일반협동조합연합회(1, 0.1%), 사회적협동조합(54, 7.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1, 0.1%)임.

표 3. 충남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수와 비율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총합계
개수	639	1	54	1	695
비율	91.9%	0.1%	7.8%	0.1%	100.0%

- 전국과 비교 했을 때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충남(91.9%)이 전국(87.20%)보다 다소 높으며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충남(7.8%)이 전국(12.3%)보다 낮게 나옴.

표 4. 전국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수와 비율

구분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 합연합회	총합계
개수	17,714	83	2,497	20	1	20,315
비율	87.2%	0.4%	12.3%	0.1%	0.0%	100.0%

2) 협동조합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개 총 2개가 있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는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가 있음. 예산군에 위치하여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적정기술 보급 확대 및 공동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는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음. 천안시에 위치하여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협동조합 물품 및 서비스 유통촉진 위한 공동 홍보 등의 사업을 함

표 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명	주소	연도	업종	유형	주요사업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예산군	2015	제조업	다중이해관계자	보급 확대 및 공동개발, 판매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천안시	20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물품 및 서비스 유통촉진 위한 공동 홍보 및 구매대행 등의 사업, 동조합 설립, 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반기 연구조사사업 등

3) 유형별 분류

-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충남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비자(11, 1.6%), 직원(25, 3.6%), 사업자(362, 52.1%), 다중이해관계자(297, 42.7%)임. 사업자협동조합

표 6. 충남 유형별 설립수와 비율

유형	소비자	직원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총합계
총합계	11	25	362	297	695
비율	1.6%	3.6%	52.1%	42.7%	100.0%

- 전국과 비교 했을 때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충남(52.1%)이 전국(73.5%)에 비해서 20% 차이가 나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자협동조합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7. 전국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 수와 비중

유형	소비자	직원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총합계
총합계	503	615	12,278	3,318	16,714
비율	3.0%	3.7%	73.5%	19.9%	100.00%

- 충남의 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업종으로는 농업, 어업 및 임업(24.9%), 도매 및 소매업(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충남 사업자협동조합의 업종별 수와 비율

	수	비율
농업, 어업 및 임업	90	24.9%
도매 및 소매업	74	20.4%
제조업	30	8.3%
교육 서비스업	28	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	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3	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4.1%
숙박 및 음식점업	14	3.9%
건설업	7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1.4%
운수업	3	0.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0.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3%
총합계	362	100.0%

4) 조합원 수

- 2020년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조사된 530개의 협동조합은 설립당시 총 6,598명의 조합원이 있었으며 2019년 말 9,970명이 되어 3,372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51.1%의 증가되었음
- 이는 2019년말 충남의 인구가 218만 8천 649명이어서 실태조사 된 협동조합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해도 0.4%임

표 9. 충남 협동조합 설립당시와 2019년 말 조합원 수

	협동조합 설립당시	2019년 말	증감
조합원수	6,598	9,970	▲3,372(51.1%)

5)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

- 인구 1000명당 협동조합수로 하면 충청남도는 인구 218만 8천 649명에 822개여서 0.38개로 17개 시,도 중 중간 순위인 9위에 해당하여 전국 평균 0.37보다 조금 높음.

표 10. 인구 1000명당 협동조합 수

지역	인구	조합수	1000명당 조합수	순위
서울특별시	9,639,541	4,406	0.46	8
부산광역시	3,372,692	915	0.27	14
대구광역시	2,429,940	747	0.31	13
인천광역시	2,952,237	559	0.19	17
광주광역시	1,489,730	938	0.63	3
대전광역시	1,498,839	753	0.50	5
울산광역시	1,143,692	356	0.31	12
세종특별자치시	338,136	168	0.50	6
경기도	13,300,900	3,545	0.27	15
강원도	1,520,127	1,081	0.71	1
충청북도	1,629,343	595	0.37	10
충청남도	2,188,649	822	0.38	9
전라북도	1,807,423	1,252	0.69	2
전라남도	1,787,543	1,063	0.59	4
경상북도	2,668,154	922	0.35	11
경상남도	3,347,209	888	0.27	16
제주특별자치도	665,048	312	0.47	7
전국	51,779,203	19,322	0.37	-

2. 설립 및 운영 추정 협동조합 수

1) 연도별 설립추이

- 기재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충남 자체만 보았을 때는 1) 초기 증가 (2013(96), 2014(100)), 2) 감소(2015(86), 2016(71), 2017(70)), 3) 재증가(2018(123), 2019(119), 2020(132)로 나옴.
- 이를 다시 전국 설립 수 대비 충남협동조합의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재증가 시기가 더욱 두드러짐. 2013~2017 3.5% 내외였다면 2018(6.03%), 2019(4.87%), 2020(5.22%)로 최근 충남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충남 협동조합 설립 추이(전국과의 비교)

	전국	충남
2012.12-2013.11	2,846	96(3.37%)
2013.12-2014.11	2,743	100(3.65%)
2014.12-2015.11	2,367	86(3.63%)
2015.12-2016.11	2,046	71(3.47%)
2016.12-2017.11	1,923	70(3.64%)
2017.12-2018.11	2,040	123(6.03%)
2018.12-2019.11	2,444	119(4.87%)
2019.12-2020.10	2,529 (18,942)	132(5.22%) (804)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2) 설립 후 운영 협동조합 수

- 기재부의 2018년 말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라 충남의 설립신고/인가된 협동조합 585개 중 운영을 추정(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조세 신고/납부한 협동조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음
 - 법인등기된 협동조합은(534, 91.3%)
 - 사업체등록된 협동조합(475, 81.2%)
 - 운영추정된 협동조합(307, 52.4%)
 - 폐업(95, 16.2%)

-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모두 높은 비율로 충남이 상대적으로 설립 후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2018년 말 충청남도 협동조합 추정운영률 52.4%를 2019년 말 협동조합 수 687개에 적용하면 360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수치는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어 설문에 응한 494개의 협동조합에서 운영추정 협동조합을 도출할 수 있음
 - 이 494개의 협동조합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조세 신고/납부한 협동조합으로 운영추정된 협동조합 수 384개임(매출이 있는 협동조합 377개, 매출이 없지만 고용인원이 있는 협동조합 7개).
 - 기재부의 2018년 말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360개 수치와 유사함.

표 12. 기재부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 충남 실태

	전국	충남
설립신고/인가된 협동조합	14,526 (100.0)	585 (100.0)
법인등기된 협동조합	13,016 (89.6%)	534 (91.3%)
사업체등록된 협동조합	11,612 (79.9%)	475 (81.2%)
운영추정된 협동조합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조세 신고/납부한 협동조합)	7,050 (48.5%)	307 (52.4%)
폐업	2,864 (19.7%)	95 (16.2%)
설문조사 완료 협동조합	3,180 (21.9%)	129 (23.4%)

3. 충남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 현황

1)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구분의 필요성과 분류

가) 구분의 필요성

- 충남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① 지역별 특색에 따른 협동조합 연구 필요성, ② 도시와 농촌에 따른 협동조합 업종의 차이에 따른 구분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 구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지역별 특색에 따른 협동조합 연구 필요성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2020.9.22.) 기록

표 14. 도시와 농촌에 따른 협동조합 업종의 차이에 따른 구분 필요성

천안, 아산은 협동조합이 업종별로 고르게 발전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림어업이나 식품제조가 대부분이다. 농촌 지역은 특산물 중심 협동조합으로 발달되었지만 교육, 복지, 육아, 예술 분야가 필요함에도 이 분야 협동조합이 거의 없어요.

출처: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2020.9.22.) 기록

나) 도농 구분의 필요성

-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때 나온 의견과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을 나눠봄.
 - 농촌형으로는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곳이 나옴.
 - 도농복합형으로는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등 6곳이 나옴
 - 도시형으로는 아산시, 천안시 등 2곳이 나옴.

- 구분의 근거로 삼은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때 나온 의견과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내용임.

표 15. 시군에 따른 농촌, 도시 구분 의견

천안, 아산은 북부권으로 대도시이다. 반면 태안, 서산, 예산은 석유, 화학이 발달해 있으며 공주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홍성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발달되어 있다. 청양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장 취약한 곳이지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기대가 되는 곳이다.

출처: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2020.9.22.) 기록

- 다음으로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의 농촌형,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람.

2)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에 따른 특색

가) 협동조합 수

- 충남의 협동조합 수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 (www.coop.go.kr)의 2019년까지의 협동조합현황 자료를 재정리함.

- 지역적 분포는 앞서의 시군에 따른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에 따른 협동조합 수를 재정리 함.
 - 농촌형(7곳, 211개), 도농복합형(6곳, 244개), 도시형(2곳, 240개)로 총 695개로 나왔음.
 - 농촌형이 7곳으로 가장 많은데도 전체 협동조합 수 합계는 오히려 가장 적게 나왔음. 정확한 비교를 위해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의 평균 협동조합 수를 산출해 비교해 보았다. 농촌형(30.1개), 도농복합형(40.7), 도시형(120)으로 나와 도시형이 월등히 높게 나왔음.
 -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중 가장 협동조합 수가 많은 곳으로는 농촌형은 논산시(52개), 도농복합형은 서산시(52개), 도시형은 천안시(137개)로 나왔음.

-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인구수 대비로 협동조합 수를 재산출 했으며 1000명당 조합 수로 산출해봄. 이를 위해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 12월 기준 인구수를 데이터로 활용함. 본 보고서에서 협동조합 수 기준이 2019년 말이기 때문임.
 - 농촌형의 1000명당 협동조합 수 합계는 3.20, 평균은 0.45로 나옴. 도농복합형의 1000명당 협동조합 수 합계는 2.35, 평균은 0.35로 나옴. 도시형의 1000명당 협동조합 수 합계 0.54, 평균은 0.25로 나옴. 앞서 단순 숫자 비교로는 도시형(240개)>도농복합형(244개)>농촌형(211개) 순위로 나왔는데 1000명당 협동조합 수로는 농촌형(3.20)>도농복합형(2.35)>도시형(0.54)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음.
 - 먼저 농촌형으로는 계룡시(0.19) ,금산군(0.82), 논산시(0.44), 부여군(0.30), 서천군(0.76), 청양군(0.32), 홍성군(0.38)로 나옴. 앞서 협동조합 수 개수로는 논산시가 52개로 가장 많았으나 1000명당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서천군이 0.76으로 가장 높음.
 - 두 번째 도농복합형으로는 공주시(0.44), 당진시(0.23), 보령시(0.30), 서산시(0.30), 예산군(0.49), 태안군(0.59)로 나옴. 앞서 협동조합 수 개수로는 서산시가 52개로 가

장 많았으나 1000명당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태안군이 0.59로 가장 높음.

- 마지막 도시형으로는 아산시(0.33), 천안시(0.21)로 나옴. 서 협동조합 수 개수로는 천안시가 137개로 가장 많았으나 1000명당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아산시가 0.33으로 더 높게 나옴.

○ 이상 재정리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표 16. 도농구분과 시군구분에 따른 협동조합 수(2019년 말 기준)

	시군	협동조합 수	인구수	1000명당 조합수
	계룡시	8	42,971	0.19
	금산군	43	52,257	0.82
	논산시	52	118,842	0.44
	부여군	20	66,740	0.30
	서천군	40	52,805	0.76
	청양군	10	31,717	0.32
	홍성군	38	100,423	0.38
	합계	211	465,755	3.20
	평균	30.1	66,536	0.45
도농복합형	공주시	47	106,474	0.44
	당진시	39	167,042	0.23
	보령시	30	101,114	0.30
	서산시	52	174,690	0.30
	예산군	39	79,238	0.49
	태안군	37	62,743	0.59
	합계	244	691,301	2.35
	평균	40.7	115,217	0.35
도시형	아산시	103	314,395	0.33
	천안시	137	652,258	0.21
	합계	240	966,653	0.54
	평균	120	483,327	0.25
총합계		695	2,123,709	6.09
전체 평균		46.3	141,580.6	0.33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재정리

나) 업종 종류 수

- 다음으로 지역별 협동조합의 업종별 분류를 해봄. 이 역시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 (www.coop.go.kr)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재정리해 본 결과임.
- 업종종류 합계 시군 평균 농촌형(10.1), 도농복합형(11.8), 도시형(16.5)로 도시형이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때 나온 의견처럼 업종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먼저 농촌형의 7개 시군의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임.
 - 업종별 종류 수로는 계룡시(6), 금산군(9), 논산시, 부여군(7), 서천군(10), 청양군(3), 홍성군(12)가 나와 홍성군(12), 서천군(10)이 높게 나옴.
 - 주요 업종으로는 홍성군(도매 및 소매업, 9)을 빼고는 모두 농업, 어업 및 임업이 높게 나옴. 계룡시(농업, 어업 및 임업 2, 도매 및 소매업 2), 금산군(농업, 어업 및 임업, 13), 논산시(농업, 어업 및 임업, 19), 부여군(농업, 어업 및 임업, 8), 서천군(농업, 어업 및 임업, 12), 청양군(농업, 어업 및 임업, 7)
 - 홍성군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 분류된 9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살펴봤을 때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직거래를 하는 곳이 많았음.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1), 2014(5), 2017(1), 2018(2)로 초기에 많이 생겨서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17. 홍성군의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수리일	유형	주요사업
대명생활환경협동조합	2013.03.28	다중이해 관계자	유통, 서비스업
한돈,한우소비자협동조합	2014.01.15	사업자	양돈 사육및 출하
하나들 협동조합	2014.03.19	사업자	- 농산물 가공판매 - 직거래장터 - 영농후계자양성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2014.03.25	사업자	- 농산물 꾸러미 사업- 귀농지원사업
홍성협업협동조합	2014.04.02	다중이해 관계자	- 임대사업- 매장사업 - 지역 문화공간 마련
홍성군직거래영농협동조합	2014.09.16	사업자	- 친환경 농산물 수집 및 유통 사업 - 지역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유통 사업
홍성군 6차산업 협동조합	2017.02.03	사업자	가락물 및 직거래 사업
광천전통시장협동조합	2018.02.02	사업자	포장용기 및 식자재 등 도소매 사업 운영관련
행복플러스희망공방 협동조합	2018.11.28	사업자	공예품 생산 및 판매사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사업 등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의 협동조합현황 자료를 재정리

- 농촌형에 해당하는 시군의 업종별 협동조합 수의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18. 농촌형에 해당하는 시군의 업종별 협동조합 수

	업종	협동조합 수
	건설업	1
	농업, 어업 및 임업	2
	도매 및 소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6
	교육 서비스업	4
금산군	농업, 어업 및 임업	13
	도매 및 소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운수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제조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업종 종류 합계	9
	교육 서비스업	5
논산시	농업, 어업 및 임업	19
	도매 및 소매업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운수업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11	
교육 서비스업	5	
부여군	농업, 어업 및 임업	8
	도매 및 소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운수업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7
서천군	건설업	2
	교육 서비스업	4
	농업, 어업 및 임업	12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 및 음식점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제조업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업종	협동조합 수
	업종 종류 합계	10
	교육 서비스업	2
	농업, 어업 및 임업	7
	도매 및 소매업	1
	업종 종류 합계	3
홍성군	건설업	1
	교육 서비스업	5
	농업, 어업 및 임업	6
	도매 및 소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업종 종류 합계	12
	업종 종류 합계 시군 평균	10.1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재정리

○ 두 번째로 도농복합형의 6개 시군의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임.

- 업종별 종류 수로는 공주시(13), 당진시(15), 보령시(11), 서산시(14), 예산군(9), 태안군(9)
- 주요 업종으로는 농촌형과 달리 농업, 어업 및 임업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공주시(농업, 어업 및 임업, 10), 당진시(교육 서비스업, 7, 도매 및 소매업, 7), 보령시(농업, 어업 및 임업, 8), 서산시(농업, 어업 및 임업, 10), 예산군(농업, 어업 및 임업, 15), 태안군(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으로 나옴.

표 19. 도농복합형에 해당하는 시군의 업종별 협동조합 수

시군	업종	협동조합 수
공주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교육 서비스업	5
	농업, 어업 및 임업	10
	도매 및 소매업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운수업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업종 종류 합계	13

	업종	협동조합 수
	교육 서비스업	7
	농업, 어업 및 임업	3
	도매 및 소매업	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운수업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15	
보령시	교육 서비스업	6
	농업, 어업 및 임업	8
	도매 및 소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2
	운수업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11
서산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건설업	1
	교육 서비스업	6
	농업, 어업 및 임업	10
	도매 및 소매업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제조업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업종 종류 합계	14	
예산군	건설업	1
	교육 서비스업	2
	농업, 어업 및 임업	15
	도매 및 소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제조업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업종	협동조합 수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업종 종류 합계	9
태안군	건설업	1
	농업, 어업 및 임업	8
	도매 및 소매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제조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업종 종류 합계	9
	업종 종류 합계 시군 평균	11.8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재정리

- 마지막으로 도시형의 6개 시군의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임.
 - 업종별 종류 수로는 아산시(16), 천안시(17)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으로는 아산시(교육 서비스업, 27), 천안시(도매 및 소매업, 22)로 나타남.

표 20. 도농복합형에 해당하는 시군의 업종별 협동조합 수

시군	업종	협동조합 수
아산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건설업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광업	1
	교육 서비스업	27
	농업, 어업 및 임업	15
	도매 및 소매업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제조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업종 종류 합계	16
천안시	건설업	2
	교육 서비스업	21
	국제 및 외국기관	1
	농업, 어업 및 임업	8
	도매 및 소매업	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5	

	업종	협동조합 수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운수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제조업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업종 종류 합계	17
	업종 종류 합계 시군 평균	16.5

출처: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재정리

4. 경영 실태분석

-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함

1) 1억 이상 매출 규모 합계

-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은 총 200개로 조사된 494개의 협동조합 중 40.5%를 차지함. 또한 앞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조세 신고/납부한 협동조합으로 운영추정한 협동조합 384개 중에서는 52.0%를 차지함
- 지역에 따라 구별을 하면 농촌형(27, 13.5%), 도농복합형(39, 19.5%), 도시형(34, 17.0%)으로 나타나 도농복합형, 도시형, 농촌형 순서로 나타남
- 시, 군에 따른 10억 이상, 5억 이상 10억 미만, 2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 매출규모에 따른 협동조합 수와 비율

지역구분	시/군	10억 이상		5억 이상 10억 미만		2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총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충청남도	계룡시			1	0.5%			1	0.5%	2	1.0%
	금산군	1	0.5%			2	1.0%	4	2.0%	7	3.5%
	논산시			3	1.5%			2	1.0%	5	2.5%
	부여군	1	0.5%			3	1.5%			4	2.0%
	서천군			1	0.5%	3	1.5%			4	2.0%
	청양군	1	0.5%							1	0.5%
	홍성군	1	0.5%	1	0.5%			2	1.0%	4	2.0%
	합계	4	2.0%	6	3.0%	8	4.0%	9	4.5%	27	13.5%
충청북도	공주시			1	0.5%	2	1.0%	4	2.0%	7	3.5%
	당진시							2	1.0%	2	1.0%
	보령시			1	0.5%	1	0.5%	5	2.5%	7	3.5%
	서산시			1	0.5%	1	0.5%	6	3.0%	8	4.0%
	예산군					1	0.5%	2	1.0%	3	1.5%
	태안군					8	4.0%	4	2.0%	12	6.0%
	합계			3	1.5%	13	6.5%	23	11.5%	39	19.5%
도시형	아산시	1	0.5%	3	1.5%	8	4.0%	12	6.0%	24	12.0%
	천안시	2	1.0%	2	1.0%	3	1.5%	3	1.5%	10	5.0%
	합계	3	1.5%	5	2.5%	11	5.5%	15	7.5%	34	17.0%
총합계	7	7.0%	14	14.0%	32	32.0%	47	47.0%	100	100.0%	

2) 10억 이상 매출 규모

-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으로는 농촌형은(4, 2.0%), 도농복합형은 없으며, 10억 이상은 없고, 도시형은(3, 1.5%)으로 나타나 농촌형 협동조합이 더 많음. 이는 아래 표에 보듯이 규모가 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임.

표 22. 10억 이상 매출 협동조합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농촌형	금산군	금산인삼협동조합	농·림·어업	2013	166,000	2,590	5
	부여군	한아름딸기협동조합	농·림·어업	2013	400,000	2,000	3
	청양군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5	118,250	6,702	23
	홍성군	봉서추모공원장요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8	270,000	22,500	10
도시형	아산시	식육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3	358,000	7,000	4
	천안시	뉴영진관광협동조합	관광·오락	2015	230,000	23,000	25
	천안시	한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	전문,과학,기술	2014	200,000	18,000	2

3) 5억 이상 10억 미만 매출 규모

- 5억 이상 10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으로는 농촌형은(6, 3.0%), 도농복합형(3, 1.5%), 도시형(5, 2.5%)으로 나타나 5억 이상 10억 미만에서도 농촌형, 도시형 순서로 나타남.

표 23. 5억 이상 10억 미만 매출 협동조합

도농복합형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농촌형	계룡시	우리겨레협동조합	제조(기타)	2015	53000	7000	7
	논산시	논산물류협동조합	운송/운수서비스	2017	60000	15600	2
	논산시	복지요양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7	70000	10000	0
	논산시		농·림·어업	2013	80000	4000	5
	서천군	바른생산자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3	94300	8900	2
	홍성군	홍성협업협동조합	도·소매및숙박	2014	56500	500	5
도농복합형	공주시	충남공예협동조합	제조(기타)	1995	68485	-10955	8
	보령시	군현어촌계	관광·오락	2003	50120	4200	1
	서산시	새롬협동조합	위생관리·경비	2018	50000	1200	33
도시형	아산시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농·림·어업	2013	55000	500	8
	아산시	충남학교급식협동조합	농·림·어업	2014	53000	1000	5
	아산시	원더우먼협동조합	보건·환경	2017	52000	2100	15
	천안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3	50000	-9500	13
	천안시	씨엔협동조합	문화·예술	2015	67419	7114	13

4) 2억 이상 5억 미만 매출 규모

- 2억 이상 5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으로는 농촌형은(8, 4.0%), 도농복합형(13, 6.5%), 도시형(11, 5.5%)으로 나타나 도농복합형, 도시형, 농촌형으로 순위가 역전됨을 알 수 있음.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2.를 참조.

5) 1억 이상 2억 미만 매출 규모

- 1억 이상 2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으로는 농촌형은(9, 4.5%), 도농복합형(23, 11.5%), 도시형(15, 7.5%)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도 도농복합형,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2.를 참조.

5. 사회적 목적 유형 기반으로 한 실태분석

1) 전체 협동조합 대상

○ 이는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
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가) 사회적가치 유형별 협동조합 수

- 일반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전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가치를 12가지로 나눠
서 구분함. 10% 이상의 비율이 나온 주요 사회적가치는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근로조건향상,소득향상(313, 29.4%)
 -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259, 24.4%)
 - 생태농업, 먹거리가공 및 유통 등 대안농업활성화(115, 10.8%)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성장지원(108, 10.2%)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106, 10.0%)

표 24. 전체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유형 구분

유형 구분	협동조합 수	비율
취약계층의자활.자립	47	4.4%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106	10.0%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 소득향상	313	29.4%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	259	24.4%
생태농업,먹거리 가공 및 유통 등 대안농업활성화	115	10.8%
낙후된 지역. 공간 인프라 개선	38	3.6%
생태공간 보존,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22	2.1%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지역주민 통합	10	0.9%
대안에너지 제공, 에너지. 연료효율성 향상	26	2.4%
공정무역, 국제개발협력지원 등 지구촌의 지속가능개발	2	0.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성장 지원	108	10.2%
기타	17	1.6%
합계	1,063(중복 수)	100.0%

출처: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나)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대상 사회적가치 유형 분류

-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은 7곳으로 한아름딸기 협동조합, 식육협동조합, 봉서추모공원장요협동조합, 뉴영진관광 협동조합, 한빛태양광발전 협동조합, 금산인삼협동조합,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임.
- 이를 중복이 있지만 사회적가치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생태농업, 먹거리가공및유통 등대안농업활성화(3), 대안에너지제공, 에너지.연료효율성향상(1),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및성장지원(2),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3), 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근로조건향상,소득향상(3), 취약계층의자활.자립(1)개로 나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유형 유형 분류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대안 농업	도시형	아산시	식육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358,000	7,000	4
	농촌형	금산군	금산인삼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166,000	2,590	5
	농촌형	청양군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18,250	6,702	23
대안 에너 지	도시형	천안시	한빛태양광발전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4	200,000	18,000	2
사회 적 경제 설립 지원	도시형	천안시	뉴영진관광 협동조합	관광· 오락	2015	230,000	23,000	25
	농촌형	청양군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18,250	6,702	23
지역 서비 스	농촌형	홍성군	봉서추모공원장요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70,000	22,500	10
	도시형	천안시	뉴영진관광 협동조합	관광· 오락	2015	230,000	23,000	25
	농촌형	청양군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18,250	6,702	23
지역 일자 리	농촌형	부여군	한아름딸기 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400,000	2,000	3
	도시형	아산시	식육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358,000	7,000	4
	농촌형	청양군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18,250	6,702	23
취약 계층 자립	농촌형	금산군	금산인삼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166,000	2,590	5

다) 5억원 이상 10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대상 사회적가치 유형 분류

- 5억 이상 10억 미만 : 14곳(바른생산자 협동조합, 꿈지락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복지요양 협동조합, 충남공예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논산물류 협동조합, 홍성협업협동조합,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충남학교급식 협동조합, 우리겨레협동조합, 원더우먼 협동조합, 군현어촌계, 다올사회적 협동조합, 새롬협동조합)
- 이를 중복이 있지만 사회적가치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생태농업,먹거리가공및유통 등대안농업활성화(6),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및성장지원(3),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6), 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근로조건향상,소득향상(12),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2), 취약계층의자활.자립(2), 기타(1)개로 나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 5억원 이상 10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유형 유형 분류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대안 농업	농촌형	논산시	꿈지락예산적정기술 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80,000	4,000	5
	농촌형	논산시	논산물류 협동조합	운송 /운수 서비스	2017	60,000	15,600	2
	농촌형	홍성군	홍성협업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56,500	500	5
	도시형	아산시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55,000	500	8
	도시형	아산시	충남학교급식 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4	53,000	1,000	5
	농촌형	계룡시	우리겨레협동조합	제조 (기타)	2015	53,000	7,000	7
사회 적경 제 설립 지원	농촌형	서천군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94,300	8,900	2
	도농 복합형	보령시	군현어촌계	관광· 오락	2003	50,120	4,200	1
	도시형	천안시	다올사회적 협동조합	교육	2013	50,000	-9,500	13
지역 서비 스	농촌형	서천군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94,300	8,900	2
	농촌형	논산시	복지요양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70,000	10,000	0
	도농 복합형	공주시	충남공예협동조합	제조 (기타)	1995	68,485	-10,955	8
	도시형	천안시	씨엔협동조합	문화· 예술	2015	67,419	7,114	13
	농촌형	홍성군	홍성협업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56,500	500	5
	도농 복합형	서산시	새롬협동조합	위생관리 ·경비	2018	50,000	1,200	33
지역	농촌형	서천군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	2013	94,300	8,900	2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일자리				및 숙박				
	농촌형	논산시	꿈지락예산적정기술 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80,000	4,000	5
	농촌형	논산시	복지요양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70,000	10,000	0
	도농 복합형	공주시	충남공예협동조합	제조 (기타)	1995	68,485	-10,955	8
	도시형	천안시	씨엔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67,419	7,114	13
	농촌형	논산시	논산물류 협동조합	운송/ 운수 서비스	2017	60,000	15,600	2
	도시형	아산시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3	55,000	500	8
	도시형	아산시	충남학교급식 협동조합	농·림· 어업	2014	53,000	1,000	5
	농촌형	계룡시	우리겨레협동조합	제조 (기타)	2015	53,000	7,000	7
	도시형	아산시	원더우먼 협동조합	보건· 환경	2017	52,000	2,100	15
	도농 복합형	보령시	군현어촌계	관광· 오락	2003	50,120	4,200	1
	도농 복합형	서산시	새롬협동조합	위생관리· 경비	2018	50,000	1,200	33
취약 계층 서비스	도시형	천안시	씨엔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67,419	7,114	13
	도농 복합형	보령시	군현어촌계	관광· 오락	2003	50,120	4,200	1
취약 계층 자립	도농 복합형	보령시	군현어촌계	관광· 오락	2003	50,120	4,200	1
	도농 복합형	서산시	새롬협동조합	위생관리· 경비	2018	50,000	1,200	33
기타	도시형	천안시	다울사회적 협동조합	교육	2013	50,000	-9,500	13

라) 1억 이상 5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대상 사회적가치 유형 분류

- 2억 이상 5억원 미만은 32곳, 1억 이상 2억원 미만은 47곳임. 구체적인 리스트는 부록3.을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의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가치가 높은 사회적협동조합 33개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정리함.

가) 업종별 분류

- 교육(11), 취약계층 고용(8), 지역 활성화(5), 유통(3), 로컬푸드(2), 예술(2), 환경(2)로 나뉨.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7. 업종별로 분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
교육(11)	학교협동조합(논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벌개, 장항고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햇빛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도령서당명덕재산골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드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사회적협동조합다물,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환경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꿈나래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8)	장애인(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얼썬사회적협동조합,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 건강간병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고운맘 모유수유지원센터, 중부사회적협동조합, 천안MTC사회적협동조합, 천안북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지역 활성화(5)	배방희망키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원
유통(3)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다울 사회적협동조합,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컬푸드(2)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푸른농업사회적협동조합
예술(2)	보부상난전놀이사회적협동조합,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환경(2)	사회적협동조합태양광발전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나) 매출 현황

- 10억 이상(2), 5억~10억 미만(4), 2억~ 5억 미만(5), 1억 이상(6)으로 나뉨.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8. 업종별로 분류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명
10억 이상 (2)	다울 사회적협동조합 (1,424,671,448), 건강한간병인사회적협동조합(1,288,769,510)
5억~10억 미만 (4)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원(559,515,911), 천안북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558,301,639),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522,485,015)
2억~ 5억 미만 (5)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401,666,971),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304,232,873),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266,548,181), 논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벌개(242,746,930),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229,110,400)
1억 이상 (6)	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176,662,520), 열쭉사회적협동조합(170,441,647), 드림교육사회적협동조합(140,592,380), 사회적협동조합 고운맘 모유수유지원센터(126,772,861),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121,779,107),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106,470,014)

다) 조합원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 수에 대해 정리해봄. 합계로는 아산제터먹이 사회
적협동조합(181),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102),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90) 순으로 나옴.

표 29. 조합원 수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연번	사회적가치 기준	협동조합명	주사업 유형	업종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합계
1	로컬푸드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어업 및 임업	89	85	7			181
2	지역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20	81	1			102
3	지역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지역사업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3	0	5	0	32	90
4	유통(상권 활성화)	다울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45		4		15	64
5	취약계층 고용	천안북면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38	15	12	5	59
6	지역활성화(주거)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원	지역사업형	건설업	43				10	53
7	교육(학교협동조합)	장항고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28		18		46
8	교육(학교협동조합)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국제 및 외국기관	8	35				43

번	사회적가치 기준	협동조합명	주사업 유형	업종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합계
9	취약계층 고용(장애인)	얼수사회적협동조합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0	7	0	18	36
10	취약계층 고용(장애인)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27	1	4	2	34
11	취약계층 고용(장애인)	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8	0	7	5	10	30
12	교육(학교협동조합)	논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별개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9	2		16	27
13	교육(역사)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9	2		6	6	23
14	교육(부모)	한국상당교육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9	3			22
15	예술(보부상난전놀이)	보부상난전놀이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22
16	환경(유류피해복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농업, 어업 및 임업						
17	유통(상권활성)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0	1	0	0	15
18	지역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지역사업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11	2	0	0	13
19	로컬푸드	푸른농업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농업, 어업 및 임업	4	5	1		1	11
20	교육(학교협동조합)	햇빛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4	2	0	2	2	10
21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협동조합 고운맘 모유수유지원센터	지역사업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9	1	0	10
22	예술(자연친화)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5	2		1	10
23	교육(문해교육 등)	사회적협동조합다물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3	2	2	1	1	9
24	취약계층 고용	건강한간병인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1			9
25	취약계층 고용	중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7		2			9

번	사회적가치 기준	협동조합명	주사업 유형	업종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합계
26	지역활성화	배방희망키움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2	1			9
27	유통(연합회)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역사업형		8					8
28	환경(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태양광발전소	취약계층고용형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3				8
29	교육(농촌유학)	도령서당명덕재산골교육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농업, 어업 및 임업	3	0	2	1	0	6
30	교육(방과후)	드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위탁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4				1	5
31	교육	꿈나래사회적협동조합	위탁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3			2		5
32	교육(환경)	환경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교육 서비스업	2					2
33	취약계층고용	천안MTC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6. 충남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

1) 교육분야

가)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 방문개요

- 장소: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 일시: 11월 7일 2시반~4시
- 참석자: 정민철(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대표),

그림 3.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사례 방문 사진



○ 설립 배경

- 농업을 꿈꿨던 사람들이 2011년 홍성군 장곡면에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모색함.
- 젊은 사람들은 농촌,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이 실습형 농부학교가 되어 통로가 될 수 있을거라고 봄.
- 유기농업보다는 가치는 적절히 하며 현실적으로 먹고 살면서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설립 경과

- 2013년 3인으로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 시작
- 현재는 50여명의 조합원과 농업을 실천하는 7~8명의 조합원으로 늘어남

○ 협동조합 지표 개괄

-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함

표 30.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지표 개괄

	내용
도농구분	농촌형
소재지	홍성군
기업명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주 사업분야	농·림·어업
법인설립일	2013
매출(만원)	14,500
영업이익(손실)	300
고용	1

○ 주요사업

- 이론 및 강의식 교육이 아닌 일반 농민하고 1년 동안 마을에 지내며 농사를 짓는 현장 실습형 농부학교. 쌈채소를 주로 하는데 이를 위해 1200평 시설하우스를 둬. 한 동이 200평내외이며 총, 8동이 있음. 논은 2000평이임.
- 생산된 쌈채소를 판매 매출은 전체 매출 1억 3천만원의 70%를 차지함. 또한 직거래를 의도적으로 30% 정도만 하는데 직거래 소득이 더 좋지만 직거래로만 팔아버리면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그래서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과 했을 때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함.
- 마을의 작은 조합으로 분화하고 연결하며 연대해 그물망을 형성해가고 있음

표 31. 협동조합의 분화와 연대에 대한 녹취 부분

우리 조합의 농사 규모는 고정시켜 놓았어요. 지자체 등에서는 가
공창고도 더 짓고 사람도 늘려가며 규모를 늘려가라고 하죠. 하지
만 그렇게 하면 직급을 만들고 노무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
리는 2013~14년부터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갔어요.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조합 및 마을의 다른 조합과 연결하
고 연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독립시키고 분화시켜야지 가벼워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래야 우리 하고 싶은 걸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학교를 열기도 함, 예를 들어 성남의 이우학교와 연결해 2박 3일 농업학교를 진행하고 있음. 이를 젊은협업농장만 아니라 지역의 8개 농장을 연결해 10명씩 보냄.

표 32. 청소년 농업학교의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한 녹취 부분

이우학교 학생들 80명 올 때 먼저 지역의 8개 농장을 불러 모아 요. 한 농장마다 10명씩 보내서 일손을 도와주고 교육비도 주겠다고 해요. 다만 쓰레기 치우기 등 평상시 농장에서 하기 싫었던 일 보다는 농업에 대한 의미를 체험 있는 노동으로서 그 시기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를 위해 총괄매니저가 8개 농장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요. 첫째 날은 강의도 하고, 마지막 날은 마을 청소도 함께 해요. 학생들은 농업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중요한 일을 했고 농업에 대해서도 배웠다는 느낌을 가져가요. 그 친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같은 시기에 오니 다음에는 따로 교육을 안 해도 되요.

지금 청소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게 강한 공동노동의 경험이에요. 그러니 협동을 경험해볼 기회가 없어요. 책으로만 배워서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하 것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체화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경제에서 협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은 없는 거죠.

10명이 학생들이 공동으로 한 하우스에서 일을 끝내고 나면 상당한 만족감을 느껴요. 처음에는 호흡이 안 맞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착착 맞게 되며 몸으로 협동을 경험해요. 그래서 농장에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요. 우리는 이 느낌을 반복적으로 줘요. 그러고나면 3학년 때는 더 이상 못 온다고 울고불고할 정도로 아쉬워해요

- 농촌 마을과 연계된 청소년들 인성교육, 생활력 회복 교육

표 33. 농촌마을과 청소년 교육과 연계에 대한 녹취 부분

홈스쿨링하다가 무기력하게 된 16세 아이가 이 곳에 1년 정도 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곳에 오면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고 저녁 7시까지 일해야 해라고 했어요. 처음에 엄마 나 집에 갈래. 너무

무서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1주일만 있어봐. 그 다음에도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 할 만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함께 일을 하고 같이 밥 먹으며 생활도 단순화되고 어른들을 비롯해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지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어요. 마을의 이장하고도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동네잔치 가서 서빙하는 방법도 배워요. 따로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생활하는 법을 익혀요. 언젠가는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해요. 보일러실 스티커에 전화번호 있으니 수리 불러라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니 현광등도 못 바꿨던거예요. 이 아이로서는 성인이 될 기회를 그동안 박탈되었던 거죠. 그렇게 7개월쯤 나니 이제 고등학교갈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검정고시 치고 자기 동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반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년배 보다 훨씬 어른스러우니까요.

인성교육도 따로 없어요. 중학생들이 와서 2주간 생활하면서 마을에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인사하니 인사 받아주는 경험을 해요. 인성교육이 큰 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인성교육이 아닐까요

○ 시사점

-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 정착함에 있어 다양한 일거리 경로 마련

표 34. 청년들을 위한 비농업 일거리 주선 관련한 녹취 부분

이 마을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으로 먹고 살기도 하지만 다른 일거리를 마련하기도 해요. 구자인 박사님 있는 마을학회의 사무국과 연구소의 스텝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고요. 장곡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곡 마을학교를 할 때 강사로 일하는 청년, 밝맑 도서관 사무국에서 일하는 친구 등도 있어요. 또 이전에 사진을 직업으로 하지 않았던 애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진으로 자리잡도록 마을의 모든 팀들이 사업을 할 때 기록으로 사진을 남기고 이 친구를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장곡 마을학회 15번 할 때 그 친구가 10번 정도 찍고 한번 오면 10만원 정도 주는 방식으로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안되면 또 다른 영역을 찾아가고요. .

-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위험사회에서의 안전지대, 완충지대로서 역할

표 35. 청소년, 청년에게 안전지대, 완충지대로서하는 역할에 대한 녹취 부분

도시에서 살다보면 한번은 낙오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서울역 앞에 섰는데 주머니에 달랑 2만원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그 순간 이곳을 떠올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7~80년대는 농촌 인구가 50%였다면 지금은 8% 정도예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고향으로서 농촌이 없어요. 여기 오면 함께 농사짓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며칠, 몇 개월 그렇게 지내다보면 회복이 되죠. 그렇게 이곳을 거쳐간 친구들에게 위험사회에서 안전지대,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 애로점

-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마을에서의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주지 못하는 점

36.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 마을에서의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녹취 부분

정부와 지자체 사업들은 사람과 공간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하라고 하는데,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 어떻게 공간 사업을 해요. 마을에 공간을 지어줘도 전기값만 1000만원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요. 농촌을 놀이공원화 하는 거예요. 공간 사업은 마을 자체의 활동력을 만들고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공간부터 밀어놓고 활동력을 올리라고 해요. 청년 정책도 그래요. 청년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의 기존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해요. 청년주택만 마을에 달랑 지으면 마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배척하게 되요. 청년주택만 아니라 마을의 집들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해야 해요. 이는 마을의 고령화 노인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야 활성화가 되요. 청년이 마을에 들어오니 혜택도 함께 오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레 청년들에게 더 우호적으로 되고 청년들이 마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 농림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농업학교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37. 청소년 농업학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몰이해와 무관심에 대한 녹취 부분

청소년을 위한 농업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도 교육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우 학교도 봉사활동인데 왜 돈을 내고 여기에 와야 하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쯤 하고 평가를 해 보니 유의미한 성과가 많아서 전교생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었어요.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육청과 대부분의 학교도 그렇고요.

나)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 방문개요

-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2시 반~5시
- 장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사무실
- 참석자: 홍승미(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상임 이사)

그림 4.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사례 방문 사진



○ 설립 배경

- 송악마을은 2007년에 거산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려고 할 때 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전원형 작은 학교로 해서 공교육에 대안학교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짐. 더불어 송남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로 만들어보자란 열의들이 생겨남. 당시 거산 초등학교가 37명 정도이며, 송남 초등학교도 80명 정도임.
- 한 반에 20명씩 6학년까지 120명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게 됨. 폐교 기준은 100명인데 전국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본부가 아산에 있었음. 지역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운동을 하면서 실제 전국 400개 학교를 살렸다. 그때 거산 초를 살려냄.
- IMF 이후 경기가 어려워져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짐. 이를 통해 마을배움터를 만들어 돌봄,교육도 하게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짐.

○ 설립 경과

- 2005년에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서 운영 이사회를 만들어냄. 2007년에 지역 아동센터 법제화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시작해서 2010년에는 노인회관 건물로 이사함. 흔치 않은 마을에서 만든 지역아동센터임.
- 2010년경 협동조합 공부를 하게 되어 2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협동조합 전문가와 함께 공부를 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동체로서 좋는데 협동조합으로서 수익모델이 나오기 힘들다고 함. 이로 인해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준비를 하게됨.
- 2013년에 귀농한 젊은 3~4개 농가들이 모여서 로컬푸드를 고민함. 이 곳이 한살림 최대 생산지역서 작은 농사로서 다양한 작물을 하며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고랑이랑 협동조합”이 만들어짐.
- 2013년부터 3년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5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 사람들 발기인모임을 2016년 2월 창립총회를 함. 그해 7월 인가를 받음
- 2018년 전국 공동체우수사례발표한마당 최우수상 시상, 충남도 민관협치발표회 우수사례발표 최우수상 수상
- 2019년에는 교육청, 시청 등의 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 송악동네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방문자가 많아짐

○ 협동조합 지표 개괄

-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의 2019 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함

표 38.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경영공시 개요

		내용
사회적가치 기준		지역활성화
협동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주사업유형		지역사업형
업종		교육 서비스업
조합원	생산자	20
	소비자	81
	직원	1
	자원봉사자	
	후원자	
	합계	102
직원		3
출자금		24,700,000
당기순이익		3,159,930
자본총계		35,519,717

○ 주요사업

- 놀다가게 활동. 송남초 앞의 10평짜리 문방구를 개조해서 사무실 겸 학부모 카페로 활용함.
 - 무인카페로서 “놀다마담” 7~8명이 1주일에 3시간씩 봉사를 함. 매일 둘째 주 화요일은 정기마담모임을 함.
 - 한편에는 책장을 마련해 된장 등 다양한 물품을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여서 위탁 판매를 하도록 함. 놀다마담이 판매해주고 2%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채움.
 - “수요 캐비장”도 만듦. 송악 마을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밴드에서 1주일에 월요일 한 번 판매글을 올리고 댓글로 구매 의향을 받아 수요일 가져가는 방식임.
 - 고랑이랑과 즐밥의 반찬판매와도 연계되어 놀다가게의 안정적인 수입원이면서 마을 소비자에게 좋은 원료를 만든 반찬을 공급함.
- 공정여행. 마을교사 12명과 함께 6개코스의 마을둘레길 안내와 생태 놀이를 진행하고 있음. 송남초(면소재지)에서 시작하는 2~3키로 거리의 둘레길을 정리하여 다양한 행사에 응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
- 마을교육.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네트워크로서 활동. 학부모대표들도 참여하고 있음. 예술제, 장학금행사, 꿈사다리캠프들을 함께 진행하며 송악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연대와 협력을 이어감.
- 충남도청, 아산시청,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조금 사업 진행. 2019년에는 아산시 행복마을학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협업 프로그램, 학교협동조합 경영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읍면동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진행함

- 2020년에는 마을함께돌봄모델구축사업도 해서 마을함께돌봄 욕구조사, 지역여건 조사사업, 마을함께돌봄 네트워크 구축, 마을함께돌봄 마을활동가 양성사업, 마을함께돌봄 모델 사업, 마을자원연계 마을함께돌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시사점

-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교사로서 운영을 하며 공동의 돌봄체계를 만들어가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음
- 교사가 전근으로 가더라도 학부모들이 마을에서 정주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함.
- 농산어촌 지역의 유희 시설을 지역의 공동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줌.

표 39.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의 마을교육공동체 공간 마련 과정

협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농림부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을의 이장이 신청을 해서 70억을 받은 사업이었는데 마을 상가들의 간판과 조명을 바꾸고 길을 닦고 집집마다 지붕을 바꾸는 사업 등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 하나로 전통예절체험센터 구축이 있었어요.

우리는 마을교육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장이 확고하고 설계도 다 나와서 안된다고 했는데 70억 중 3억이 남아있어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통예절체험교육 옆에다가 마을교육센터를 조그맣게 지어달라고 작성해서 갔더니 과장이 보기에 이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건물 하나로 만들고 전통예절체험은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건물은 무상으로 3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재계약하면서 5년으로 했어요.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도 농림부에서 지어서 유희공간으로 방치된 곳을 우리처럼 마을교육센터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받은 많은 추진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기도 해요.

2) 농업분야

가)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방문개요

-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12시
- 장소: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 참석자: 장명진(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선경(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그림 5.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방문 사진



○ 설립 배경

- 음봉면의 한살림연합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생산자 공동체 강화사업으로 시작됨. 한살림 연합회 회원들이 7~80명 되는데 실제 적극 참여하는 분들은 4~50명 정도였음
- 음봉면 자체가 일제에도 적극적으로 항의한 지역으로 박정희 정권 때도 화학농업, 다수확농업이란 명분으로 신품종 통일벼 강요할 때에도 일반벼를 고집했던 지역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자로서 한살림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함.
- 한살림과 별도의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한살림의 경우 유기농 농사를 하지만 토종 종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임.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자주권 등 토종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음.
- 일반 농민들이 토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중

자 시장이 있기 때문인데 수확량이 많고 토종보다 싸지만 기후가 나쁠 때는 수확이 더 적는 등 단점도 많아 토종 종자도 일정한 여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봄.

○ 설립 경과

- 2012년 12월 창립총회를 함
- 2013년 콩재배 기술교육을 하며 3월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음. 2017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사회적기업부문 장려상을 수상함.

○ 협동조합 지표 개괄

-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의 2019 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함
- 2018년까지는 적자였고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단기순이익이 2400만원이 나옴. 이전의 손실보존을 함. 생산자들에게 수매단가를 높여 지급하기에 흑자보다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함

표 42.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요

		내용
사회적가치 기준		로컬푸드
협동조합명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유형		지역사업형
업종	생산자	농업, 어업 및 임업
	생산자	89
	소비자	85
	직원	7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181
합계		8
직원		138,100,000
출자금		24,530,987
당기순이익		176,383,405

○ 주요사업

- 콩나물생산 관련사업으로 콩 생산자 교육실시 및 생산자 관리, 무농약 인증 장려 등을 함
- 토종채종포 및 토종농부학교 사업으로 토종 씨앗을 채종하고 보관하는 채종포 운영, 토종종자로 농사짓는 농부를 양성하는 학교형태 운영, 토종농사 과정을 함께 배우고

실습하는 활동 등을 함. 특히 토종농부학교는 1200평을 빌려서 토종 벼를 심고 도시농부 텃밭처럼 1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함. 토종 종자를 받고 1년 내내 밭 갈기부터 해서 파종 재배 등까지 쪽 같이 농사를 짓는 방식.

- 교육사업으로 조합원인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 대상 로컬푸드 등 교육
- 제품개발 및 생산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등. 최근에는 밀맥주 가공도 모색해보고 있음.
-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공공급식 판로 개척,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아산시 먹거리푸드 플랜, 아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푸드연대, 협동조합 협의회 등과의 연대사업

□ 시사점

- 토종 종자를 바탕으로 하되 생산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로컬푸드 방식의 경제순환구조를 만들. 생산자 조합원이 직접 원료를 생산하고,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을 도입함. 시장에서 콩 가격이 3~4천원 할 때 이곳에서는 토종종자 무농약 콩나물을 재배한 생산자 조합원으로부터 6천원에 매수함.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역할. 현재 1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 더욱이 최저임금이 아닌 아산시가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직원들은 모두 직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직원 조합원의 출자금을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문턱을 높게 하지 않았음.

○ 애로점

- 충남의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토종 종자를 7년 전에 처음 도입하고서 이후 전국적으로 5~6군데 정도만 생겨남. 아산 외에는 진주 정도가 제일 규모있게 함. 확산에 있어서 어려움. 다만 최근에는 전국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서천군, 공주군, 청양군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충남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토종종자 농업을 확산해갈 청년 부족

표 43.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 관련 녹취 부분

일반농 하다가 유기농으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기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단 체념적 가치관이 크죠.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구석구석 포진해 있으면 타켓을 잡아서 하면 되죠. 하지만 주류가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다보니 고령화된

사회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귀촌보다 귀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곳이 고향이었던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할 때 초기 2~3년간은 도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죠. 농업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들어와서 농업으로 정착하려면 15년은 걸립니다. 또한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못하면 결국 왕따가 되고 빗지고 떠나게 되죠.

- 판매의 다각도와 새로운 소비자 유입 등을 위해 신제품 개발 및 홍보가 중요하나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여유가 없음

표 44. 아산제택먹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제품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관련 녹취 부분

얇은빵이 밀, 유기농 콩나물을 예측 생산하지만 남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경우 기부나 버리게 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을 하려고 하죠. 그러려면 신제품 개발에 매달리는 전담 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은 여력이 안되죠. 홍보도 마찬가지로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저희 셋이서 하기도 한계가 있어요.

나)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 설립 배경

- 외지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타 지역의 대형급식업체 위주로 운영되던 서천상권을 되찾기 위해 시작됨.
- 협동조합의 강기원 이사장이 2008년 10월에 로컬푸드를 추구하는 생산자들과 함께 '얼굴있는먹거리영농조합'을 결성하고 직매장을 낸 경험을 연계해서 추진됨.

○ 설립 경과

- 2013년 3월에 설립을 해 당해연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2014년 서천육류점을 비롯해 서천푸드, 천산마트, 자활영농사업단, 흥덕작목반, 푸른마을작목반, 금당영농조합, 직원조합원, 텃밭김치, 바다고물상, 우리집식당, 옛고을곰탕, 정원족발, 키즈마미, 푸른마을작목반, 얼굴있는먹거리 등 총 19개 업체가 참여함

- 2014년 3월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과 계약을 맺고 한국요양병원, 서해병원, 서천군 보건소, 서천소방서 등과 계약을 맺어 서천산 농산물을 납품함.
- 2018년 매출 9억 4천 300만원, 영업이익8천 900만원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 지표 개괄

-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함

	내용
도농구분	농촌형
소재지	서천군
기업명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주 사업분야	도·소매 및 숙박
법인설립일	2013
매출(만원)	94,300
영업이익(손실)	8,900
고용	2

○ 주요사업

- 서천지역 농업과 상권 활성화, 바른생산자협동조합 직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방식

그림 6. 서천의 바른생산자협동조합 직매장



출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사람들/(7)바른생산자협동조합(뉴스서천, 2017.6.21)

○ 시사점

-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이 뜻을 모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통해 보다 우수한 농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로컬푸드 협동조합

○ 설립배경

- 농업의 규모화 및 시설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수의 전업농 중심으로 생산, 가공 및 유통이 이루어진 결과, 노령농가 및 겸업농가, 소규모 복합유기농가의 경우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함
- 충남로컬푸드 협동조합 중 유의미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을 살펴봤을 때 '소농이 행복한 청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시작하였으며 공공성을 대전제로 청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청양식생활 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지역 소비체계를 구축하려고 만들어짐.

○ 설립경과

- 충남의 경우 2014년(2), 2015년(4), 2016(3), 2017(1)으로 2015~2016년 많이 설립됨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7년에 지역의 소농과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 충남의 로컬푸드 협동조합 지표 개괄

-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함
- 충남지역에서는 총 9개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아산시(2개,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아산배방로컬푸드 협동조합), 논산시(2개, 논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물류시스템구축, 가까이에 로컬푸드 협동조합)가 2개 설립되어 있으며 당진시(1개, 당진로컬푸드 협동조합), 청양군(1개,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금산군(1개, 가온로컬푸드 협동조합), 홍성군(1개, 홍성로컬푸드협동조합), 예산군(1개, 충남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은 1개씩 설립되어 있음
- 다만 매출 규모와 고용인원을 보았을 때 청양군의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표 45. 충남의 로컬푸드 협동조합 현황

	기업명	주 사업분야	법인연도	매출(만원)	영업이익(만원)	고용
청양군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18,250	6,702	23
논산시	논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림·어업	2017	15,000	4,000	2

	기업명	주 사업분야	법인연도	매출(만원)	영업이익(만원)	고용
	물류시스템구축					
아산시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림·어업	2015	15,000	800	3
금산군	가온로컬푸드 협동조합	제조 (농가공식품)	2016	8,000	400	2
홍성군	홍성로컬푸드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6	7,000	750	1
아산시	아산배방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림·어업	2014	4,000	200	1
당진시	당진로컬푸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500	0	0
논산시	가까이에 로컬푸드 협동조합	교육	2016	0	0	0
예산군	충남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0	0	0

○ 주요사업

- 주요사업은 충남로컬푸드 협동조합 중 유의미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로컬푸드 직매장인 '농부마켓'을 통해 청양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함. 당일 수확, 1일 유통의 원칙을 통해 농부마켓 운영을 통한 농가수취율은 85~88%에 이룸
- 농가레스토랑 '농부밥상'을 통해 청양의 농산물로 만든 밥상을 판매함
- 꾸러미 배송시스템인 '반찬부뚜막'을 운영하여 직장인, 학생, 어르신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6종의 집반찬을 집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냄.

그림 7.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의 로컬푸드 직매장 '농부마켓'



출처: 「작지만 강한 청양의 자부심,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부마켓 & 농부밥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야기 블로그, 2019.6.10.)

4) 작지만 강한 청양의 자부심, 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부마켓 & 농부밥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야기 블로그, 2019.6.10)

○ 시사점

-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는 소득증개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식품을 적정가격에 공급받는 지역순환형 경제의 활성화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 내 얼굴 있는 농산물 및 특산품, 고사리 등 농가에서 생산된 1차 가공품,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의 공예품 및 가정식 식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애로점

- 충남에는 총 9개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개설되어 아산시(2), 논산시(2), 당진시(1) 청양군(1), 금산군(1), 홍성군(1), 예산군(1)이지만 청양이외에는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 청양 외에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3) 유망 사업연합회의 사례

가) 충남 협동조합연합회 개요

- 충남에는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는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는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음.

표 4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명	주소	연도	업종	유형	주요사업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예산군	2015	제조업	다중이해관계자	보급 확대 및 공동개발, 판매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천안시	20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물품 및 서비스 유통촉진 위한 공동홍보 및 구매대행 등의 사업, 동조합 설립, 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반기 연구조사사업 등

- 또한 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되지 않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이 있음. 연구진은 가원을 유망분야 연합회 사례조사로 탐방함

나)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 사례 방문

○ 방문개요

- 장소: 가원 사무실
- 일시: 11월 7일 10시반~12시
- 참석자: 한웅준(가원 사무국장), 남궁기원(공주), 김순태(금산), 김연태(예산)

그림 8.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 사례 방문 사진



○ 설립 배경

- 개별 자활기업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집수리 자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
- 자활기업들의 연합회로서 역할을 하며 자활기업들의 사업의 규모화, 고도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작함.
- 처음에는 출자금 8백만원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늘려감

○ 설립 경과

- 2014년 11월 5일 설립
- 2018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 나오기 시작했다.

○ 협동조합 지표 개괄

- 회사 성격의 개인사업자가 3개, 법인조합원이 11개.
- 조합원들의 평균 매출은 5억원 정도. 매출이 많이 나는 법인 조합원 15억원
- 경영공시를 통한 협동조합 지표 정리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의 오류가 있어 아래 내용 중 약 5억 6천만 원의 매출액과 약 9천만 원 당기손순익은 수정해야할 부분. 매출액에 보조금 사업을 넣고, 이 보조금 사업들은 각 법인조합원으로 다시 갖기에 당기손순익에서는 빠져야하기 때문임.

표 47.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의 경영공시 자료 정리

기준		지역활성화(주거)
협동조합명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원
주사업유형		지역사업형
업종		건설업
조합원	생산자	43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10
	합계	53
직원		2
출자금		42,000,000
당기손순익		89,984,748
자본총계		172,375,775
매출액		559,515,911

○ 주요사업

- 충남의 자활센터 등의 연합회 성격으로 공동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각 자활기업의 공동 기능 수행. 정책/사업 위원회, 교육/홍보 위원회
- 법인 조합원들의 사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도면 교육, 시공 교육 등), 법인 조합원들의 각 실무자를 모아서 실무 위원회를 만들기도 함. 실무자들간의 연결. 사업 서류 만드는 것, 견적 내는 것을 공유.
- 공동구매 사업
- 사회적기업이 아닌 법인 조합원에 대해 사회적기업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원주택 모델화사업
- 사회공헌사업<보듬채> 등. 주택수리 자활기업의 이미지 제고

○ 시사점

- 실질적으로 연합회 역할을 하면서 법인 조합원들이 회비를 월 10만원씩 내고 사업수수료도 3%를 가원에 내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해 가려 노력 중.
- 공동모금회 등 개별 법인으로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충남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원이 대표성을 갖고 추진, 진행

○ 애로점

- 주택수리 자활기업의 연합회 성격으로서 사회주택 등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 관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 하지만 이렇게 면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규모화가 어려움
- 지자체

표 48.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의 지자체 협력에 대한 아쉬움 관련 녹취 부분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다. 저희의 경우 군의 주거복지지원센터와는 계약 진행을 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시에서 저희와 진행을 하지 않는 결로 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주겠다 의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7. 충남 협동조합의 애로요인

- 이는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 설문에서는 매우 불필요(1), 불필요(2), 보통(3), 필요(4), 매우 필요(5)로 점수가 매겨져 있어 3점보다 높게 나오면 필요하고 그보다 낮으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통해 일반 사회적경제와 비교를 했음. 양의 수치가 높을수록 협동조합이 해당 항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이며 반대로 음의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1) 조직, 경영,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

가) 조직설립

- 협동조합(3.95)과 사회적경제(3.91) 모두 “적정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사업장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높았음 또한 이 항목에 대해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음.(0.03 차이)
-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3.56)이 사회적경제(3.53)보다 높게 나온 영역(0.03 차이) 중 “조직설립 취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음

표 49.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조직설립 관련한 애로사항

	① 조직설립 취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② 조직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모금	③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한 사업아이템 발굴	④ 적정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사업장 확보
	3.56	3.60	3.62	3.95
사회적경제	3.53	3.59	3.60	3.91
차이	0.03	0.01	0.02	0.03

나) 경영

- 경영에 대해서는 3.8~3.9가 나와 필요성이 높았음. 아울러 협동조합(3.98)과 사회적경제(3.97) 모두 “조직 지정/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높았으며 약간의 차이지만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일반보다 조금 더 필요성이 높았음(0.01 차이)

표 50.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경영 관련한 애로사항

	⑤ 조직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진행	⑥ 조직 지정/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⑦ 조직운영에 적합한 인력 찾기	⑧ 조직운영에 필요한 재무 인력 확보
	3.95	3.98	3.85	3.87
사회적경제	3.94	3.97	3.85	3.87
차이	0.01	0.02	-	-

다) 판매

- 판매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도 3.8~4.15가 나와 필요성이 높았음. 아울러 협동조합(4.15)과 사회적경제(4.09) 모두 “조직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및 자금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높았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차이가 더 높게 나왔음(0.06 차이).

- 협동조합이 출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확보하다보니 판매에 있어 애로사항이 크다고 보임

표 51.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판매 관련한 애로사항

구분	⑨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⑩ 조직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및 자금확보	⑪ 판매 활동에 필요한 훈련된 인재 찾기	⑫ 조직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보
협동조합	3.85	4.15	3.90	4.05
사회적경제	3.84	4.09	3.89	4.03
차이	0.00	0.06	0.02	0.02

라) 조직, 경영, 판매 애로사항 비교

- 앞서 살펴본 각 항목을 평균을 내어 조직, 경영, 판매상의 협동조합 애로사항을 다시 비교해봄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모두 판매 > 경영 > 조직 순으로 애로사항이 높게 나옴.

표 52.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조직, 경영, 판매 애로사항 비교

구분	조직	경영	판매
협동조합	3.68	3.91	3.99
사회적경제	3.66	3.91	3.96
차이	0.02	0.01	0.03

2) 필요한 정책수요

-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유통채널 지원, 충청남도 차원의 사회적기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판매와 자금 확보에 있어서 정책적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통채널 지원(0.02 차이), 충청남도 차원의 사회적기금(0.03 차이)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일반보다 필요성이 더 높게 나옴.

표 53.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필요한 정책 수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통합 판로지원	4.16	4.16	-
시장진입 역량강화 지원	4.13	4.13	0.01
유통채널 지원	4.24	4.22	0.02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4.13	4.14	-0.02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4.32	4.33	-0.01
상품 인지도 및 브랜드 강화 지원	4.20	4.19	0.01
충청남도 차원의 사회적기금	4.24	4.21	0.03
소액금융지원사업(구 미소금융지원사업)	3.97	3.93	0.04
중소기업정책자금	4.07	4.06	0.01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조직보증	4.15	4.13	0.03
사회적기업투자펀드(모태펀드)	3.95	3.89	0.05
지방자치단체융·투자	4.29	4.27	0.03

8. 충남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이는 충남연구원에서 2020년 진행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나 향후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불만족스러운 영역을 도출하고자 함
-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평균보다 협동조합 만족도 평균이 낮게 나왔음

1) 지원정책 만족도

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심의절차 공정성(3.62), 지원절차 간편성(3.68), 약정내용 이해 용이성(3.72), 지정시기 적절성(3.83) 순으로 나왔음.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만족도의 차이를 봤을때는 약정 내용 이해 용이성과 관련해서는 0.04 차이로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 만족도가 낮았음.

표 5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절차는 간편하다.	3.68	3.67	0.01
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심의 절차는 공정하다.	3.62	3.62	0.01
③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약정 내용은 이해가 쉽다.	3.72	3.76	-0.04
④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정 시기는 적절하다.	3.83	3.85	-0.02

나) 운영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운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지원 금액(3.61), 지원항목의 사업운영 적절성(3.62), 기업 자립에 도움(3.63), 지원기관 지원에 도움(3.63), 사회적경제 브랜드의 도움(3.70) 순으로 나옴. 사회적경제 평균도 비슷하게 나왔으며 기업자립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 협동조합보다 더 낮게 나옴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만족도의 차이를 봤을때는 지원기관의 지원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0.08 차이로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 만족도가 낮았음.

표 55. 운영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⑤ 사업비 금액에 대해 만족한다.	3.61	3.66	-0.05
⑥ 인건비 등 예산 지원정책이 기업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	3.63	3.69	-0.06
⑦ 사업비 지원 항목은 사업운영에 적절하다.	3.62	3.67	-0.05
⑧ 인사/노무/회계 등 지원기관의 지원은 도움이 된다.	3.63	3.71	-0.08
⑨ 사회적경제라는 브랜드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된다.	3.70	3.71	-0.01

2)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만족도

가) 지자체

○ 역량

- 지자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전문성(3.74), 사회적경제 이해도(3.82) 순으로 나왔으며 사회적경제 평균도 동일한 순서임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만족도의 차이를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으나 이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 낮게 나옴.

표 56. 지자체 역량에 대한 만족도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① 담당공무원은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	3.82	3.84	-0.02
② 담당공무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성을 보유	3.74	3.75	-0.01

○ 활동

- 지자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홍보 및 마케팅(3.81),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3.84)순으로 나왔으며 사회적경제 평균도 동일한 순서임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만족도의 차이를 봤을 때는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0.06으로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만족도가 낮았음.

표 57. 지자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③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정보와 내용 에 대해 만족	3.84	3.85	-0.01
④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만족	3.81	3.86	-0.06
⑤ 담당공무원의 관리 및 감독 은 체계적	3.85	3.87	-0.02

나) 중간지원조직

○ 역량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전문성(3.77), 사회적경제 이해도(3.81), 지역에 대한 이해도(3.89) 순으로 나옴. 사회적경제 평균도 동일한 순서임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만족도의 차이를 봤을 때는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만족도가 0.04~0.05 차이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표 58.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에 대한 만족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차이
①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의 목적 을 잘 이해	3.81	3.85	-0.04
② 지원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	3.77	3.81	-0.04
③ 지원기관은 우리 지역 의 자원과 문화를 잘 이해	3.89	3.94	-0.05

4. 협동조합 정책 환경 및 광역 자치단체

협동조합 정책 사례 분석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정책 과제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 2012년 1월에 공포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을 금융과 보험업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써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는 법률적 환경으로 전환되었음.
- 협동조합 개별법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야 협동조합기본법이 도입된 배경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최근에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제도방식의 기업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선구적 추진, 조합원간의 협동과 민주적 참여의 훈련, 동종 및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의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20년대 일제하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운동을 총독부가 탄압하면서 좌절된 이후 1960년대에 신탁운동으로 상향적인 협동조합운동은 맥을 이어 왔지만 개발독재체제하에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제화되고 국민들에게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협동조합이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음.
 - 그리하여 국민들 사이에 협동보다는 동업기피문화가 조장되었고, 협동의 노하우는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대(solidarity)의 정신은 꽃을 피우지 못한 가운데 고도압축성장이 이루어졌음(장종익, 2012).

- 이러한 점에서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하여 허용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전에 있어서 적지 않게 정부의 주도성이 강하였고 협동조합적 기업형태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형태가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확산이 더딘 측면이 있었음.

-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지닌 보통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안적 비즈니스기업을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협동의 성과를 체험하고 협동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이러한 협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이타적인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매년 2천-3천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2018년 말 기준 설립신고된 일반협동조합과 설립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14,526개에 달하였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신고주의가 적용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요건이 약간 더 까다롭고, 경영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초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에 비하여 매우 더딘 편이었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이 지난 2013년 11월말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3,045개의 설립 협동조합 중에서 3.3%에 불과하였으나 해가 지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수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1,185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8.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증가하였음(〈표 63〉 참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설립 증가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59.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유형별 조합 수 누계 추이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합계
'13. 11	1,909 (63.0)	225 (7.4)	208 (6.8)	601 (19.7)	102 (3.3)	10	3,045 (100.0)
'14. 11	4,380 (76.1)	228 (4.09)	173 (3.0)	771 (13.4)	207 (3.6)	30	5,759 (100.0)
'15. 11	5,993 (72.7)	357 (4.3)	254 (3.1)	1,276 (15.5)	362 (4.4)	47	8,242 (100.0)
'16. 11	7,304 (70.6)	433 (4.2)	326 (3.2)	1,699 (16.4)	582 (5.6)	56	10,344 (100.0)
'17. 11	8,532 (69.1)	484 (3.9)	371 (3.0)	2,087 (16.9)	815 (6.6)	61	12,349 (100.0)
'18. 12	9,767 (67.2)	536 (3.7)	432 (3.0)	2,532 (17.4)	1,185 (8.2)	74	14,526 (100.0)

주: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기초한 협동조합 유형 분류에 따라 설립 신고되거나 인가된 조합의 수.

출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통계 (www.coop.go.kr), 안주엽 외,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9

○ 소상공인·프리랜서·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사업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애로요인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의 협동조합, 통번역가, 강사 등 프리랜서들이 일감의 공동 수주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⁵⁾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공동체 증진에 기여하는 개인 조합원 중심의 지역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 등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15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수치를 평균하면, 소상공인·소기업협동조합의 비중은 43.8%, 프리랜서협동조합은 23.4%, 지역공동체 증진형 및 소비자협동조합은 19.3%, 직원협동조합은 1.8%, 사회적협동조합은 11.7%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 실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54.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및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설립된 14,526개의 협동조합 중 54.2%인 7,050개의 협동조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프리랜서들은 자발적인 성격의 전문적인 프리랜서, IT개발자 등 대기업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인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 및 복지증진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이 가장 많았고, 조합원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 정부지원 획득항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약간 높게 나타난 점과 반면에 조합원의 친목 도모가 일반협동조합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 것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설문조사결과에서 엿볼 수 있는 시사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에 비하여 공익적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표 60.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비교(1순위+2순위)

(단위: %)

	소득및복지증진1)	합리적 경제소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지역사회 공헌2)	조합원친목 도모	정부지원획 득
사회적 협동조합	48.9	15.6	45.6	73.7	4.4	10.1
일반 협동조합	85.9	23.4	35.0	35.7	9.9	7.8

주1) 조합원 사업경쟁력 제고 항목 포함

주2) 기부·자원봉사활동 포함

출처: 안주엽 외,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9

-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민주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성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적인 규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 및 휴면 조합의 양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상당수 협동조합이 설립 이후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모델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정책적 지원체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시장 실패 혹은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애로요인 정도, 리더의 역량, 핵심 조합원간의 교류 및 협력의 강도, 목표와 성과를 중요시하는 규칙 등에 대한 성공요인들이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음. 노인 돌봄,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이사서비스 등 시장의 불완전성이 높으며 취약계층이 일하는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체들이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할 조직적 기반과 지원체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정책과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초와 한계

- 협동조합기본법은 국회의 각 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법안을 성안하고 발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과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여러 부처와 조율하여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이 시행되었음.
-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세법 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리 상호성법인으로 인정하여 조합원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의 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협동조합의 연대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잉여를 조합의 공동자산으로 적립하거나 연합회의 공동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3천 여개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 이는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에 1차 기본계획을, 2017년 1월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⁶⁾
- 1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 명 달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협동조합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교육 확대를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며,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4대 핵심분야가 제시되었음.

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자료 획득 가능.

-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은 각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담당 공무원의 신설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립과 신고, 인가과정을 원활히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홍보와 교육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중소기업청 이외에 협동조합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찾기 어려웠음.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부처 차원에서 눈에 띄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기획재정부는 2107년 1월에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초는 1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정책적 내용이 변화하였음.
 - 그동안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협동조합의 자본 및 매출액이 영세한 규모로 자생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11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2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게 추가된 정책과제는 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등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과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의 개발 등이 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국세청, 지자체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 발표되었음.

2) 협동조합 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3차 기본계획(2020-2022)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제도 도입·정착기를 지나 법제정 10년이 되는 시기로서 성장기로 전환을 준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7년이 경과하면서, 초기 창업한 협동조합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점이어서 성장기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정착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가)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실태 분석

□ 양적 성장

- 협동조합 설립 수(신고·인가 기준)가 매년 2천여 개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 말 14,526개**
 - 협동조합 수(신고·인가): ('14) 6,235 → ('16) 10,615 → ('18) 14,526
 - 유형별 개수('18년): (일반)협동조합 13,267개, 사회적협동조합 1,185개, 연합회 74개

- '18년 기준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 수*는 7,050개로, '16년(5,100개) 대비 38.2% 증가
 - *사업체등록을 하고, '18년도에 과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16년 대비 54.6% 증가하는 등 큰 폭 증가
 - ('16→'18) (일반)협동조합(4,514→6,166), 사회적협동조합(549→849), 연합회(37→35)

□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출자금, 피고용인 등의 증가 추세

-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 ('16→'18) 조합원수(61.6→67.0명), 출자금(47→57백만원), 매출액(2.7→3.7억원)

-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

그림 9. 설립연도 별 매출액 평균(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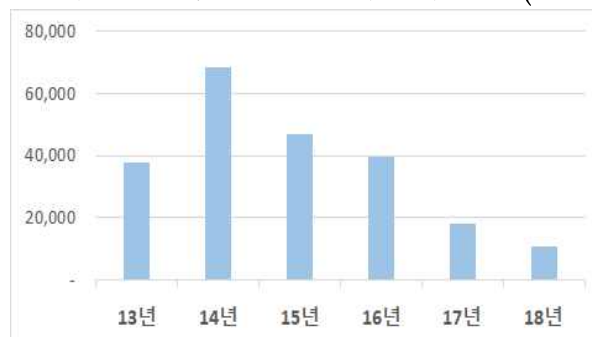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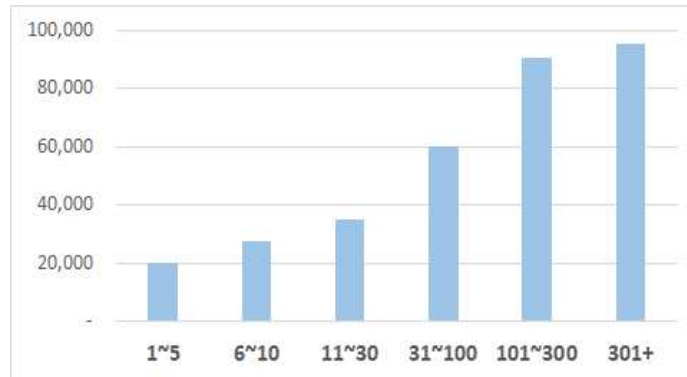


그림 10. 조합원수 별 매출액 평균(만원)



-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가 '18년 31,335명으로, '16년 대비(20,409명) 53.5% 증가
 - 조합 당 평균 피고용자는 '16년 4.0명에서 '18년 4.4명으로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66.0→70.8%), 월평균 임금(131.3→158.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78.8→82.9%)이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 임금근로자 중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규모**는 '16년 대비 46.7%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율(%): ('14) 26.8 → ('16) 43.3 → ('18) 42.3
 - 취약계층 고용인원(명): ('14) 1,787 → ('16) 7,662 → ('18) 11,243

□ 업종·규모화 측면에서 한계 노정

- (업종)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등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
 -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22.1),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예술·스포츠(9.0), 제조업(8.9), 협회 및 단체(6.5), 보건 및 사회복지(5.4), 출판·영상(3.9) 등
- (규모)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
 -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

나) 정책 방향

- (COOP 1.0)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
→ (COOP 2.0)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 ❶ 제도 도입·정착 →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 ❷ 설립단계에 초점 → 규모화·연대 등을 통한 성장단계로 전환
 - ❸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❹ 개별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
 - ❺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지역 자생기반 강화

다)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미래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Scale-up) 지원
- 돌봄 분야 협동조합
 -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돌봄 분야의 협동조합이 미미*한 만큼 협동조합형 돌봄시설 활성화
 - * 돌봄 협동조합 현황('19.11월): 협동 어린이집(158개), 협동조합형 유치원(1개), 노인요양시설(9개), 지역아동센터(18개), 다함께돌봄센터(7개)
 - 국공유 재산 임차 등을 통한 공간확보 지원,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분야 협동조합의 확장(육아-방과후 교육-노인요양)이 가능하도록 특화 교육 추진
 - 대상별 특화 돌봄이 아닌,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20년 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그림 11. 지역사회 돌봄 협동조합 플랫폼 모델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1.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
 - (대상) 대표의 은퇴를 앞두고 경영 승계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 경영부실·폐업 등에 처한 기업 등
 - 동일 직무 노동자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비용이 낮고, 시장경쟁 및 자본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집중
 - * (예시)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
- (지원방안)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을 지정·운영('20년)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2. 프리랜서 협동조합

-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형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 이들에 대한 '노동보호' 강화
- (대상) 사용자가 다수 또는 불특정하거나, 단순 중개역할만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
 - 플랫폼 노동자(배달원,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문화예술, IT 개발자 등
- (지원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 (조직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혁신리더 발굴 및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한국형 모델 개발 지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

원) 등을 통해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개발 지원

- *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한 유럽에서 활성화

□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복제하거나, 성공모델의 노하우 확산을 지원하는 (가칭) 콤파이즈 사업 추진
-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인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모델 개발·확장 등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 지원
 - (현행) 예비 창업자의 협동조합 설립지원 중심
 - (개선) 설립지원 + 사업연합, 성공모델 복제·확산 등 성장지원

□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 지역·업종별 연합회가 매트릭스 구조로 상호 보완하는 체계 구축
 - 정부는 간접적 방식(관련 법령 개정, 연대조직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원사업 개편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대표 연합회 설립 지원
 -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통해 기본법-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간 시너지 창출
 -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20.9월부터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등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 추진
-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회원조합(법인) 대상 공제사업부 터 활성화

- (판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사업’을 신규 시행,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추진
 - 중앙 및 지방정부, 농협, 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20년 지자체 매칭 지원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 (자금)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
 - 신탁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탁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해외사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추진

- 자율공시 강화: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을 위한 연차보고 매뉴얼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30억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주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거래 구분 등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회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기능·역할을 통합·연계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중간지원기관이 중앙부처·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권역별(16개 시·도) 지원기관, 자치단체 위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중복·다원화되어 비효율적 운영

- 지원기관 종사자가 지역의 협동조합 전문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자치단체별 수요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협동조합 집중 육성
 -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참여가 적합한 분야 발굴, 분야별 협동조합 관리, 정부사업과 협동조합 매칭 역할

-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지역연합회-중간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
- 광역자치단체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수립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 연대 및 협업 지원 등을 포함

□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 개선
- (동등한 혜택) 세제, 계약제도 등에 있어 성격·특성이 유사한 여타 법인(개별법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들에 준하는 혜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20.7.1. 시행)
- 협동조합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분야 발굴·육성

표 61. 협동조합과 중앙부처 사업 연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협동조합 유치원, 학교협동조합 ▶ (복지부) 협동 어린이집, 돌봄 협동조합 ▶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버스·택시 협동조합 ▶ (문체부) 은퇴선수 협동조합, 공공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 공공스포츠클럽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 (해수부) 어촌뉴딜 사업

- 정부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정책 설계 시 협동조합 모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무원 교육 강화

표 62. 협동조합과 중앙부처 정책 설계 시 제도개선 사례

- ▶ **(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시, 공공시설 임차 허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 ' 18.11월) → 공유시설을 임차한 2호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예정(' 20.3월, 경기도 동탄)
- ▶ **(어촌뉴딜 사업)** 사업시행자 위탁가능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 20.2월 시행)
 - * (현행) 수협중앙회·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 → (개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추가
- ▶ **(임대사업)** 협동조합형 임대사업에 대한 규정(조합원 모집·신고기준(' 20.5월 시행),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 20.11월 시행) 등) 마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 애로요인 해소

- 우선출자제도를 통해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협동조합의 경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원칙, 운영원리에 대해 교육하는 표준교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업종별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효과적 설립·운영을 위한 조합원 구성,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협동조합(중·고교)의 경험이 대학생협동조합(대학) 및 협동조합 창업(일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조직화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 확장을 위해 협동조합형 창업 및 인큐베이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 코치 육성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확대
 - 사업 리모델링, 합병, 해산 등 진단내용별 교육·멘토링 매칭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 등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매년 산출, 성과 관리·홍보 강화

3.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사례

1)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요와 성과

가) 서울시 협동조합정책 개요

- 서울특별시는 2012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동조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왔음.
 - 지원조례의 핵심 내용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조)이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2014년 2월)한 점임.
- 서울시는 2013년 2월에 1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홍보와 상담, 기초 교육,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공구매에서의 협동조합 차별해소정책의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고 있음.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운영되어왔으며, 초기에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2014-19년간 총 52,518건), 기초교육, 설립지원교육, 심화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코칭사업, 협업모델지원 등 경영지원(총 148개 조합)을 수행해왔음.

나) 정책 성과와 한계

- 이러한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힘입어 서울시에서의 협동조합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일반협동조합 3,205개, 사회적협동조합 359개 등 총 3,564개가 설립되었음.
- 협동조합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비하여 운영률은 52.6%(기재부 협동조합실태조사, 2018년 말 기준)로 전국 평균(54.2%)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임.
 - 자금 조달, 판로개척, 운영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협동조합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종, 규모 측면에서 한계

- 사회서비스 등 협동조합 장점이 발휘 가능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에 도소매업(22.1%), 교육서비스업(15.0%), 예술 및 스포츠(9.0%)에 편중되고 있음.
- 조합원수 10명 미만 협동조합이 58.7%에 달하고 있음.

2) 서울시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

-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로 설정되었고, 정책 목표는 4가지로 튼튼한 협동조합 기반조성, 전략분야 집중육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4가지로 설정되어 있음.

나)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수단

- 협동조합 판로 지원
 - 협동조합 기반조성 목표를 위하여 설정된 협동조합 판로 지원정책은 공공구매영업 지원단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물품 및 용역을 공공기관에 영업 및 매칭 활동을 진행 하고 공공구매상담회를 개최.
 -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패키징 등 협동조합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돌봄·교육·집수리 등 협동조합 특화분야 서비스 및 상품의 판촉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 시민들이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구매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등 바이소셜 캠페인 진행
- 협동조합 용자 지원
 - 연간 40억 원 규모의 용자금을 협동조합에 지원함.

표 63. 서울시 협동조합 용자 지원

분	협동조합 용자	사회주택 용자	*우수기업 용자
용자한도	3억원	25억원	3억원 (‘협동조합 용자’ 한도와 별도)
용자기간	최대 6년	최대 9년	최대 9년
이 자 율	3%이내	3%이내	3%이내
자금용도	시설비 및 운영비	토지(건물)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비 및 운영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

○ 유망·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홍보

-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 매년 50개를 선정하여 모범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로 홍보하여 확산에 기여
- 코로나 19에 따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및 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 협동조합프랜차이즈, 그린분야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 분야별 공모 및 선정,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등 경영지원 추진

○ 협동조합 상담·교육·경영지원

- 일반상담사 3명과 전문상담사 8명(법무, 법률, 회계, 세무, 인사·노무, 경영 등)의 운영을 통한 상담 지원
- 입문교육, 경영전략 교육, 지원담당자 대상 교육으로 체계화
- 창업 및 성장 지원 전문컨설턴트 50명 위촉 운영

○ 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발굴·육성

- 사회주택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 교육분야, 연구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소비유통 분야, 제조업 분야 등에서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제언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1)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목표

-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목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설정될 수 있음.
 - 다양한 처지와 여건속에 살아가고 있는 도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필요와 애로요인을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체를 통하여 충족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도정이 도와주는 것임.

2) 충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방향

가) 상향식 발전의 관점 견지

- 현장의 필요에 입각하여 풀뿌리 조직으로서 상향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성에 초점을 맞춤
 - 협동조합은 자조, 협동, 연대의 가치를 원리로 하는 민주적이고 조합원 참여 기업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필요와 책임에 입각하여 발전하여야 지속가능성이 높음.
 - 충남도와 시군은 이러한 당사자 주도성과 책임성하에 협동조합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관점을 견지함.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식이 아니라 협동조합섹터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춤.

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 전략

○ 이윤 추구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기존 경제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1. 협동조합의 장점과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와 성공요인에 대하여 학교 및 성인교육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하고 홍보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행정적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
3.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시장 환경 분석이 매우 중요하는 점에서 이러한 보통사람들이 숙의하여 만든 협동조합 비즈니스 개발 플랜을 전문적으로 진단해주고 코칭해주는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특히 택시운전사, 요양보호사 등 협동조합이 매우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돕는 생태계를 조성.
4. 공공조달 및 각종 공공 지원정책에서 협동조합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협동조합이 발휘하는 사회적·환경적 순기능을 조건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개발.
5.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여 발전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사업연합회 및 충남협동조합총연합회 등 연합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

다) 충남도와 시군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

- 충남도와 시군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협동조합 발전 생태계의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기본계획 설계
 - 현장에 가까운 시군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초적인 상담, 협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기에 적합한 지역의제 발굴 기능을 1차적으로 담당.
 - 충남도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진단기능, 전문 법률 및 세무 상담기능, 전략적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지원기능, 협동조합 지원인력 및 리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능, 협동조합 지원금융 정책, 공공조달 및 각종 공공정책에서의 협동조합을 배려하는 정책 개발 기능 담당

라) 행정 및 민간과의 협력 생태계 조성

- 자기이익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이 지닌 풀뿌리 기반의 민간주도성 및 공동체성이 상실되지 않기 위하여 협동조합연합조직, 대학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민간 지원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은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공개경쟁하는 공모사업 중심의 민간위탁사업이 단기적이고 고립분산적인 자원배분방식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협동조합당사자조직 및 민간지원조직의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관파트너십이 민간지원조직의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연합조직 등 당사자조직 및 민간지원조직의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방안

1) 기초 생태계 조성 전략

가) 협동조합 교육시스템 구축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확산

- 경쟁하는 법은 배우기 용이하지만 협동하는 노하우는 체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부터 협동을 통하여 공동비즈니스의 성공 경험을 체험하고 협동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경험은 사회 진출 후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선택과 운영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음.
- 충남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 중고등학교 매점 등의 협동조합 방식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

○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성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 평생학습관과 협력을 통하여 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육아, 건강, 돌봄, 주거, 먹거리, 공동체활동 등고 관련된 기술교육 및 제과제빵기술 등 소상공인관련 기술교육 등에 협동조합 교육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동일한 관심 분야를 가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배운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대안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함.
- 이러한 성인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은 단순한 협동조합 소개 교육이 아니라 관심분야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육아관련한 강좌에는 육아협동조합, 건강과 돌봄 관련한 강좌에는 의료협동조합과 노인돌봄협동조합, 주거와 공동체 관련 강좌에는 주택협동조합, 마을과 아이 교육 관련 강좌에는 학교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교육협동조합, 먹거리와 건강 관련 강좌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생협, 각종 프리랜서 관련 기술 강좌에는 프리랜서협동조합, 제과제빵기술 등 소상공인관련 강좌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협동조합 지원담당자 및 리더 교육

- 도 차원에서는 협동조합의 리더와 도 및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협동조합 지원담당자에 대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연 2회 개최
- 협동조합에 관한 설립 안내 및 제도에 관한 소개 교육은 시군단위에서 담당하고 도

차원에서는 유형별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사례 분석, 자금조달 및 조합원 참여 제고 전략, 협동조합간 합병 및 사업제휴 전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나) 상담 및 비즈니스모델 진단기능

○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행정적·세무적 절차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담기능을 제공
- 협동조합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시군단위 이외에 모든 시군 지역 소재 도민에게 상담 기능 제공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기능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분석 기능 제공

- 절반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채 미운영 상태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공동의 필요와 애로요인을 지닌 설립동지자들이 논의한 협동조합적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의 타당성과 시장환경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면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상호성과 연대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유지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협동조합적 방식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독일에서는 행정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총연맹에서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임. 이러한 사전 진단이 독일 협동조합의 파산율을 매우 낮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2) 스케일 업 전략

가) 협동조합의 스케일 업을 위한 전제 조건과 세 가지 전략

○ 협동조합을 공동체 조직에서 대안적 비즈니스 조직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마을에 기반한 주민들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은 협동조합보다는 프랑스에서의 결사체(association)과 유사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기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행정관청의 인가대상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도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규모 마을주민조직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을 마을주민들의 소규모 교류활동 조직과 대안적 조합원 비즈니스 조직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동체 조직, 후자는 대안적 비즈니스 조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 이외에 로컬푸드협동조합, 의료 및 돌봄서비스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은 비즈니스의 질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함.
-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 달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발전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의 수평적·수직적 자가 팽창, 유사한 협동조합과의 합병,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과의 비즈니스 협력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짐.
 - 협동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 전문경영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은 경영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경영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보다 용이해지는 등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나) 합병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합병이 될 수 있음.
 - 합병을 통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조합원 중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닌 리더의 확보 가능성이 증가하며, 비용의 중복을 줄일 수 있어 조직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농협, 소협, 신협 등 국내외적으로 협동조합 발전의 역사는 합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합병의 저해요인은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에 관한 인지의 기회 부족, 타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부족, 합병 후 사업혁신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리더의 추진력 미흡, 협동조합 리더들의 현상 유지 경향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종업종 혹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 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합병의 효과 및 성공사례, 성공 요인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
 - 협동조합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 분석의 결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합병이 제시될 때, 합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경영진단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됨.
 - 합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과의 교류 및 부분적 사업협력 등의 경험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 사업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의 합병은 자본 결합체인 주식회사의 합병과는 달리 인수합병보다는 협동조합 간 대등한 신설합병을 지향하기 때문에 합병 후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하여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합병조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및 조직운영 혁신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요구됨.
 - 소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의 중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경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리더의 경영역량 함양 교육/훈련이 요구됨.

다) 사업연합 촉진 프로그램 운영

- 동종업종의 협동조합 간 사업협력 혹은 사업연합, 그리고 이종협동조합 간에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협력을 통하여 스케일업을 실현할 수 있음.
 -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영농자재공동구매협동조합이 동종협동조합 간 사업연합을 구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이탈리아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간의 콘소시움이 대표적인 이종협동조합 간 사업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협업공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코디네이터가 협동조합 간 합병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음.

3) 충남형 협동조합의 확산 전략

- 충남도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분야로 추정되면서 출현이나 성장이 충분치 않은 분야로 평가되는 네 가지를 충남도가 충남형 협동조합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분야로 설정하였음.
 - 의료 및 노인돌봄 분야 협동조합
 - 학교 및 마을공동체교육협동조합
 - 지역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로컬푸드협동조합
 - 농업 및 농촌마을과 도시인을 연결하는 ‘비밀언덕’협동조합

- 위 네 가지 이외에도 주택협동조합과 소상공인협동조합,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도 수요가 높거나 설립은 많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분야로서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충남도가 보유한 제한된 자원을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투입하는 전략에 입각하여 전략적 육성분야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의료 및 노인돌봄 분야 협동조합

-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핵가족시대로 인하여 가족돌봄체제에서 사회적 돌봄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복지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난맥상이 적지 않음
 - 충남은 노령화율이 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독거노인의 수도 7만 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선진국의 복지파트너십 및 돌봄서비스 수혜자 참여구조(서비스의 공동생산)의 경험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199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 25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자원봉사성격의 건강코디네이터를 통한 건강관리활동,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걱정진료원칙, 재가 및 시설 요양서비스 제공,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건강돌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00년에 설립되어 6405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 14억원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가정간호사업소, 요양원,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원구노인복지관 및 선부종합사회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기반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심주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자원 및 기부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사회서비스원 및 노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노인건강복지돌봄의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최근에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에서는 홍성군 홍동면을 중심으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 2015년에 설립되어 조합원수 573세대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충남도가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지 충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남지역에 의료복지 및 노인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공동체활동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뜻있는 주민리더와 뜻있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모임, 교육 및 금융측면에 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가짐
- 2013년 학교에서 시작된 학교협동조합 활동은 서울,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정책으로 수립됨.
 - 학교협동조합은 경제조직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결사체의 성격이 있으며 다양한 배움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경제공동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와 관련된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해가는 교육자치, 함께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체화함.
 - 학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사업운영에서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천을 통한 학습 즉, Learning by Doing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음. 이는 기업가정신과도 연결됨

-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서도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마련해가고 있음
 - 2017년에는 정부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인력양성 체계강화” 부분에 “초·중등 교육내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이 들어가 있음
 - 2018년에는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과목개설과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사회교과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등 교원에 대한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을 확대하도록 함.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정보 전달 강의만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캠프, 사회적 문제해결 창업체험교육, 자유학기제 연계학습,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함.

64.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 중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부분

<p>교육과정 반영 및 학령기 교육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교육과정 개편 전 조치 가능한 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개설 지원) 사회교과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 ○ (교원 역량 강화) 초·중등 교원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 확대하고 교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 포함 ○ (체험학습 확대) 사회적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액션러닝, 일체험, 동아리 활동 등 체험학습을 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캠프를 확대, 사회적 문제해결 창업체험교육 확대 운영 - 초·중·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활성화 및 자유학기제 연계 학습 지원 등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2단계)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내용 추가 반영
--

- 교육부에서는 2018년 8월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국가평생진흥원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두어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을 시작함. 이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특별보조금도 배부되고 중앙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학교협동조합 정책화 및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함.

표 65. 교육부의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2018)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체험 가능 ○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 개발·보급 ○ (체험학습 확대)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 지속 발굴 ○ (혁신학교 연계 운영)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주도의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 함양 도모 외

- 충남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
 - 충남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2013년 초기부터 학교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던 경기(47), 서울(27), 강원(13)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인 7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있음.
 - 2015년 경기도와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의 시·도교육청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충남도 2019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표 66. 전국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현황 (2020. 10. 31.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현황	27	3	4	4	2	0	1	0	4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현황	13	4	7	4	2	1	9	2	13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또한 충남에서 앞서 우수사례에서 봤듯이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을 비롯해 마을교육공동체형 협동조합이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지자체 등의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교사로서 운영을 하며 공동의 돌봄체계를 만들어가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사가 전근으로 가더라도 학부모들이 마을에서 정주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유희 시설을 지역의 공동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줌.
 - 현재 충남도청, 아산시청,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행복마을학교, 읍면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우며 상근자를 두기 쉽지 않은 상황. 조합원이 매일 1만원을 내는 등 자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청소년 교육, 아이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지자체 등의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 지역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 농업의 규모화 및 시설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수의 전업농 중심으로 생산, 가공 및 유통이 이루어진 결과, 노령농가 및 겸업농가, 소규모 복합유기농가의 경우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북 완주에서 시도된 로컬푸드운동은 지역 내 얼굴 있는 농산물 및 특산품, 고사리 등 농가에서 생산된 1차 가공

품, 더 나가 귀농귀촌인들의 공예품 및 가정식 식품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순환형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충남지역에서도 청양, 아산, 논산, 홍성 등에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청양이외에는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 (가칭)충남지역 로컬푸드협동조합 활성화 추진단을 결성하여 완주 등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및 로컬푸드협동조합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시군단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충남 내 15개 시군의 3-4개 권역 단위로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면 매장의 물품 다양화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로컬푸드협동조합들이 충남로컬푸드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여 학교급식 협동조합,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등 토종종자를 살리는 협동조합 등과 사업을 협력하여 지역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관련 협동조합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농업 및 농촌마을과 도시인을 연결하는 '비빌언덕'협동조합

- 기존 청년 귀농, 귀촌 정책의 문제점
 - 소멸되어가는 고노령 농촌 마을을 되살리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을 위한 시작됨
 - 이론 및 강의식 교육으로 실제 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농업을 혼자서 배운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할 수 있음
 - 청년이 농촌마을에 이주민으로서 스며들기가 쉽지 않아 배척 당하며 고립되어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청년들을 위한 '비빌언덕' 협동조합의 역할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경우 청년들이 일반 농민하고 함께 1년 동안 마을에 지내며 농사를 짓는 현장 실습형 농부학교를 운영해 농업에 대한 본인의 적성 판단과 실질적인 농업기술을 체화할 수 있음
 - - 청년들이 1년간 기존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구성원들과 함께 정착함으로써 농

촌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음

- 농업이 맞지 않는 경우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 정착함에 있어 다양한 일거리 경로도 마련해줘서 비빌언덕 역할을 함

○ 청소년들을 위한 ‘비빌언덕’으로 협동조합의 역할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사례를 보았을 때 지역의 소규모 농장을 연결해 교육농으로서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협동심, 인성, 생활력 회복 교육을 할 수 있음.
- 지식 습득으로서가 아니라 체화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거나 윤리적 소비자로서 생태계 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촌으로서 고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 청소년과 청년이 회복할 수 있는 비빌언덕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정감있고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안전지대,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업 및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비빌언덕’으로 협동조합 역할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마을의 작은 조합으로 분화하고 연결하며 연대해 그물망을 형성해감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속성을 확보해갈 수 있음
- 도시에서 온 귀농, 귀촌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발휘하여 농업 중심의 농촌 마을에 문화 및 관광, 먹거리, 공예 등의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기존 농업과 연계하여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충남도청과 지자체의 지원사항

- 이러한 ‘비빌언덕’으로 협동조합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 청년, 농촌 마을에서의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움
- 홍성군의 경우 기존 마을의 교육력, 자치력, 협동력 등이 있었기에 자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으나 타 지역에 이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자원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간 마련이 중요함. 농촌에는 유휴공간이 많아 이 공간을 일정한 기준하에 지역 내 ‘비빌언덕’ 협동조합들에 적극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 농업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의 예산 책정 등 충남도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함. 현재는 농림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농업학교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4) 충남형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개발협동조합 추진

- 충남형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환경 분석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체의 교육 등 기획창업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지닌 상대적 단점으로 인하여 초기에 집중적인 자본이 요구되거나 기획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협동조합이 출현되지 않거나 출현되더라도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 전략적인 육성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과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그룹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개발협동조합(Cooperative de Development Regional du Quebec, CDRQ)을 운영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시군단위에서 설치된 지역개발협동조합의 도움으로 퀘벡에서의 협동조합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였음(캐나다 전체 8,400개 협동조합 중 3,300개 협동조합 차지, 캐나다 전체 협동조합 내 152천개 일자리 중 95천개 일자리 차지).
 - 880만명 인구를 보유한 퀘벡주 내 11개 지역에 지역개발협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직원수는 약 30명.

-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기존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민관파트너십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에서 충남형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을 지원하고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비즈니스모델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충남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면서 충남의 3-4군데의 거점지역에 사무실을 운영.
 - 기존 협동조합, 법률, 컨설팅, 교육기관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운영하는 기타 공익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안주엽, 길현중, 2019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
- 이인재, 장종익, 김혜원, 박종현, 『서울시 2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2017년 8월, 서울시.
- 장종익,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 86호, pp. 289-320, 2012년 10월.
- 장종익, 2014, 『협동조합 비즈니스전략: 개념, 비즈니스모델, 사례』, 동하.
- 장종익, 2017,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협동조합연구』 35(2): 81-101.
- 장종익, 송성호, 『충청남도 협동조합의 수요분석과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12월.
-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기업소유권의 진화』 박주희 역, 2017, 북돋음).
- Irizar, I. and G. MacLeod, (2010). *32 Claves Empresariales de Mondragon, ACD* (송성호 역, 『몬드라곤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나』, 착한책가게, 2016).
- Laidlaw, A. F., (1980), “Cooperative in the Year 2000,” Agenda and Report of ICA 27th Congress, (염찬희역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알마).
- Ménard, C. (2007). “Cooperatives: hierarchies or hybrids?,” In *Vertical Markets and Cooperative Hierarchies* (pp. 1-18). Springer, Dordrecht.
-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Enterprise & Society*, 11(2): 98-127.
- Surroca, J., M. A. García-Cestona, and L. Santamaria, (2006).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ondragón Cooperatives,” *Management Research: The Journal of the Iberoamerican Academy of Management*, 4(2): 99-112.
- Williamson, O. E., (1996). *The Mechanisms of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충남 시,도에 대한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구분을 위한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

- 1) 농촌형으로 고른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곳 관련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

표 67.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한 농촌형 시군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일반	계룡1	두마면왕대리, 입암리	323.454
	농공단지	계룡2	노성면 읍내리 11	192.315
	합계			515.769
논산시	일반	논산	성동면 원북리 일원	253.354
	일반	논산2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	508.81
	일반	동산	연무읍 동산리 일원	729.1806
	농공단지	가야곡	수석동 1156외	186.269
	농공단지	양지	0	116.914
	농공단지	양지2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136.808
	농공단지	연무	연무읍 양지리 산20-5	124.228
	농공단지	연산	연무읍 양지리 14-12 일원	81.438
	농공단지	은진	연무읍 죽본리799	70.264
	농공단지	동산	연산면 송정리 125	83.178
	농공단지	강경	은진면 토양리 33	129.657
	농공단지	가야곡2	연무읍 동산리 산4-3	310.754
	농공단지	노성특화	강경을 채운리 331	174.7973
	합계	13		2905.652
금산군	일반	금산	제원면 명암리,수당리	920.45
	농공단지	금성	두마면 입암리	221.698
	농공단지	복수	0	117.765
	농공단지	추부	금성면하신리	244.778
	농공단지	인삼약초 특화농공 단지	복수면용진리	114.6874
	합계	5		1619.378
부여군	농공단지	은산	부리면 창평리	123.326
	농공단지	임천	0	170.608
	농공단지	장암	은산면은산리20	157.642
	농공단지	홍산	임천면칠산리330	127.8752
	농공단지	은산폐선 특화	장암면합곡리1007	61.996
	농공단지	은산2	홍산면홍양리306-3	226.6784
	합계	6		868.1256
서천군	국가	장항	장항읍 일원	2750.779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장항	은산면가중리569	472.934
	농공단지	중천	0	250.418
	농공단지	중천2	장항읍원수리450	197.478
	농공단지	서천김가 공특화	중천면석촌리380-2	78.541
	합계	5		3750.15
청양군	농공단지	비봉	서면 월리 산28-1	156.233
	농공단지	운곡	0	148.821
	농공단지	정산	비봉면방한리	273.566
	농공단지	학당	운곡면효제리	129.873
	농공단지	화성	정산면역촌리	144.042
	농공단지	운곡2	청양읍학당리산46-1	146.109
	농공단지	정산2	화성면장계리	186.694
	합계	7		1185.338
홍성군	일반	홍성	갈산면 취생리	1134.669
	농공단지	갈산	정산면 학암리 산64-1	121.965
	농공단지	결성	0	141.065
	농공단지	광천	갈산면 취생리 602	144.652
	농공단지	구항	결성면 성곡리 608	166.983
	농공단지	은하1	광천읍 신진리 608	109.163
	농공단지	은하2	구항면 청광리 26-15	95.254
	농공단지	광천2	은하면 장척리 1124	56.772
	농공단지	갈산2	은하면 화봉리 1007-4	136.207
	합계	9		2106.73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 2) 도농복합형으로 고른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등 6곳의 관련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

표 68.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한 도농복합형

시군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공주시	일반	탄천	0	996.609
	일반	유구자카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95.911
	일반	세종	유구읍 유구외곽로	664.26
	일반	남공주	의당면 가산리 산18-2	400.074
	일반	송선	공주시 검상동 산7-2	314.379
	일반	쌍신	공주시 송선동 산32-49	225.755
	일반	동현	0	300.864
	농공단지	검상	직산읍부송리72-17	408.478
	농공단지	계룡	0	49.64
	농공단지	유구	공단길 40	227.961
	농공단지	장기	계룡면 영규대사로 599	91.734
	농공단지	정안	유구읍유구리662	151.956
	농공단지	우성	송선농공단지길 25	142.421
	농공단지	보물	정안면 농공단지길 55-8	134.873
	농공단지	정안2	우성면보흥리산79-1	294.921
	농공단지	월미	정안면보물,광정리517번지 일원	149.528
	농공단지	의당복합	정안면 농공단지길 32-102	147.476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월미2	월미동 산47 일원	69.009
	합계	18		4865.849
당진시	국가	석문	석문 삼봉리,고대 성산리	12011.61
	국가	아산		6155.286
	국가	-고대	송악읍 한진리,고대리	3036.397
	국가	-부곡	송악읍 부곡리	3118.889
	일반	합덕	0	969.884
	일반	현대제철(송산)	합덕읍소소리,석우리	5837.382
	일반	송산2	송산면 가곡,동곡리	4290.299
	일반	합덕인더스파크	송산면 가곡,동곡,유곡리	641.104
	일반	당진1철강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2018.406
	농공단지	당진	태안읍삭선리1005외	85.038
	농공단지	면천	0	139.1006
	농공단지	석문	당진읍시곡리81	214.599
	농공단지	송악	면천면문봉리893	170.923
	농공단지	신평	석문면통정리54	137.866
	농공단지	한진	송악면가학리산1-2	142.58
	농공단지	합덕	신평면거산리121	106.212
	합계	16		39075.58
보령시	국가	고정	주교면 고정리	6308.574
	일반	관창	0	2442.223
	일반	영보	주교면 관창리	1250.994
	일반	웅천	오천면 영보리	685.3221
	농공단지	대천	월미동 일원	102.359
	농공단지	웅천	0	228.946
	농공단지	웅천석재	요암동 74	149.968
	농공단지	주산	웅천읍 구룡리 5-9	154.188
	농공단지	주포	웅천읍 대창리 961-1	165.413
	농공단지	주포2	주산면 야룡리 243-1	143.2489
	농공단지	청소	주포면 관산리 320-15	146.7204
	농공단지	청라	주포면 관산리 558	67.002
	합계	12		11844.96
서산시	국가	대죽자원	대산읍대죽리	911.653
	일반	대죽	0	2101.483
	일반	서산오토밸리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3989.547
	일반	대산	지곡면무장,화천리,성연면오사리	1103.283
	일반	서산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일원	812.034
	일반	서산테크노밸리	성연면 왕정,일람오사리 등	1985.848
	일반	대산컴플렉스	대산읍 대죽리	648.713
	일반	서산남부	장동, 오남동 일원	878.347
	일반	대산3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539.9572
	일반	현대대죽	대산읍 대죽리	672.4886
	일반	서산엠피씨	대산읍 독곶2로 50	184.308
	농공단지	고북	탕정면동산리	124.631
	농공단지	명천	0	142.673
	농공단지	성연	고북면가구리지내	775.552
	농공단지	수석	성연면명천리산172-1	230.612
		합계	15	
예산군	일반	예산일반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일원	1507.145
	일반	예당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일원	1042.649
	일반	신소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일원	483.67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예산제2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일원	1120.274
	농공단지	고덕	갈산면 운곡리 488-3	159.5
	농공단지	관작	0	144.502
	농공단지	삽교	고덕면호음리	146.812
	농공단지	신암	예산읍관작리	153.216
	농공단지	예덕	삽교읍두리산29-1	205.175
	농공단지	예산	신암면두곡리	188.754
	농공단지	응봉	고덕면호음리	150.698
	농공단지	증곡	예산읍주교리	145.097
		합계	12	
태안군	도시첨단	내포도시첨단	태안읍 장산리 877외	1260.003
	도시첨단	태안도시첨단	0	38.9
	농공단지	태안	응봉면 증곡리	105.108
		합계	4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3) 도시형으로 고른 아산시, 천안시 등 2곳 관련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

표 69. 2020년도 3/4분기 산업단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한 도시형

시군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아산시	일반	인주		3528.93
	일반	-인주1	0	1552.597
	일반	-인주2	인주면걸매리	1811.585
	일반	-인주외국인	인주면대음,금성리	164.748
	일반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인주면걸매리	2450.572
	일반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탕정면명암리	2095.062
	일반	테크노밸리	탕정면명암,용두,갈산	2983.902
	일반	아산 운용	둔포면 둔포,운용,석곡	73.697
	일반	아산제2테크노밸리	둔포면 운용리	1200.443
	일반	아산디지털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351.309
	일반	탕정테크노	음봉면 원남리 95-1	686.528
	일반	탕정	탕정면 용두리 1-8일원	505.446
	일반	아산스마트밸리	탕정면 갈산리 451일원	450.624
	일반	아산 염치	음봉면 산동리 산24-2번지일원	303.116
	일반	인주3공구	0	1816.7
	농공단지	도고	청라면 내현리 36-2	197.599
	농공단지	둔포2	0	116.419
	농공단지	둔포	도고면 신언,금산리	73.779
	농공단지	득산	둔포면 신항리,영인면 신봉리	215.685
	농공단지	배미	둔포면산전.관대리	74.88
	농공단지	신인	득산동312-4	64.067
	농공단지	신창	배미동145	56.04
	농공단지	영인	신인동18-1	145.943
	농공단지	탕정	신창면읍내리	93.254
	합계	24		21012.93
천안시	일반	마정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49.988
	일반	산업기술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182.808
	일반	천안2	서북구 차암동	827.485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천㎡)
		천안3		2133.801
	일반	-천안3	서북구 차암동, 성성동, 백석동	844.644
	일반	-외국인	서북구 백석동일원	492.514
	일반	-천안3확장	서북구 성성동일원	796.643
	일반	천안4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1006.047
	일반	천안5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1523.387
	일반	풍세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1644.529
	일반	천흥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650.753
	일반	LG생활건강	서북구 성환읍 북모리	875.254
	일반	동부바이오		386.369
	일반	북부BIT		334.108
	일반	성거		305.805
	도시첨단	직산도시첨단	직산읍 모시리 일원	333.872
	농공단지	동면	0	68.533
	농공단지	목천	0	104.744
	농공단지	백석	동면송연리174-1	350.464
	농공단지	직산	목천읍소사리242-1	171.783
	합계	20		13183.53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부록 2.

1억 이상 5억 미만 협동조합 리스트

1) 2억 이상 5억 미만 매출 협동조합 리스트임(32개)

표 70. 2억 이상 5억 미만 매출 협동조합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연 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농 협	금산군	은성관광협동조합	관광·오락	2015	43,200	432	12
	금산군	홍삼전문제조마스터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5	25,000	500	1
	부여군	으뜸버섯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8	20,000	200	1
	부여군	한화고속관광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5	32,400	400	9
	부여군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교육	2015	27,000	790	4
	서천군	두리하나협동조합	예식업	2013	36,080	482	5
	서천군	장항나루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8	24,500	2,005	7
서천군	모시촌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7	23,800	1,500	1	
구 민 협	공주시	사회적협동조합세움	교육	2016	27,000	13,000	12
	공주시	공주학교급식농축산물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6	45,000	2,200	0
	보령시	충남전세버스협동조합	관광·오락	2014	31,050	350	7
	서산시	대한숲해설가협동조합	문화·예술	2015	40,000	200	12
	예산군	아시아푸드마트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5	28,000	0	6
	태안군	태안반도투어협동조합	관광·오락	2012	22,000	220	7
	태안군	태원협동조합	관광·오락	2015	30,000	300	8
	태안군	올협동조합	관광·오락	2017	20,000	400	2
	태안군	참마음스스로해변학교협동조 합	도·소매및 숙박	2018	26,000	520	1
	태안군	청포대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3	30,000	600	1
	태안군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6	21,000	600	4
	태안군	원북건설기계협동조합	도시재생	2018	38,400	768	1
태안군	원북이원희망협동조합	보건·환경	2014	20,000	1,800	7	
도 시 협	아산시	엔케이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4	20,000	400	2
	아산시	씨엠티협동조합	도시재생	2015	36,000	700	2
	아산시	한국진돗개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20,000	800	2
	아산시	협동조합블루	문화·예술	2017	42,000	2,100	4
	아산시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25,000	810	6
	아산시	협동조합고랑이랑	농·림·어 업	2014	37,000	1,200	9
	아산시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 조합	교육	2014	45,000	1,200	30
	아산시	에이스건축기공협동조합	도시재생	2013	30,000	1,800	3
	천안시	천안북면도란도란협동조합	노인돌봄	2014	42,000	-4,500	20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연 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천안시	드론군단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7	36,000	-4,000	3
	천안시	피알(PR)마케팅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7	38,200	-500	3

2) 1억 이상 2억 미만 매출 협동조합 리스트업(47개)

표 71. 1억 이상 5억 미만 매출 협동조합

도농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농촌 형	계룡시	계룡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	2018	10,000	2,000	1
	금산군	천부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7	10,000	400	3
	금산군	천지현홍삼흑삼협동조합	농·림·어업	2014	10,000	700	3
	금산군	한국기계전기산업협동조합	제조(기타)	2016	15,000	1,200	1
	금산군	기쁜우리협동조합	농·림·어업	2014	12,000	1,000	2
	논산시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물류시 스템구축	농·림·어업	2017	15,000	4,000	2
	논산시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6	17,000	1,700	2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농·림·어업	2013	14,500	300	1
	홍성군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의료서비 스	2015	15,400	3,010	7
도농 복합 형	공주시	고마협동조합	노인돌봄	2016	12,500	-800	5
	공주시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8	15,000	4,000	4
	공주시	자연의소리사회협동조합	문화·예술	2015	16,000	500	3
	공주시	지역상권육성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7	12,189	1,129	11
	당진시	솔미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7	14,000	-5,000	3
	당진시	당진시대방송미디어협동조합	문화·예술	2018	10,000	700	2
	보령시	보령화원협동조합	농·림·어업	2017	10,500	-50	0
	보령시	보령시산림토석업협동조합	문화·예술	2015	14,500	350	0
	보령시	살림마을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8	14,000	500	8
	보령시	보령중앙시장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5	12,500	630	7
	보령시	세움협동조합	교육	2015	11,250	750	1
	서산시	네이처팜협동조합	농·림·어업	2015	14,000	140	5
	서산시	서산동부전통시장갯마을협동 조합장터쌈지찬	도·소매및 숙박	2015	12,000	500	1
	서산시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농·림·어업	2017	15,000	3,000	1
	서산시	충남한우유통협동조합	농·림·어업	2013	15,000	2,200	1
	서산시	에스그린협동조합	보건·환경	2016	19,000	2,130	7
	서산시	참농인삼협동조합	제조(농가 공식품)	2013	12,000	1,000	5
	예산군	충남농식품유통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10,000	120	3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예산군	충남주거복지센터	건설/건축	2014	15,000	1,000	2
	태안군	카진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8	12,000	-1,000	2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6	13,000	130	1
	태안군	청포아일랜드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19,200	540	3
	태안군	한국특농선양협동조합	농·림·어업	2014	18,000	2,000	2
도시 형	아산시	아랑두림협동조합	전문,과학, 기술	2015	10,000	400	3
	아산시	협동조합와트	문화·예술	2018	10,000	400	5
	아산시	WIMDESIGN협동조합	문화·예술	2013	10,000	410	4
	아산시	한국상당교육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6	15,000	450	5
	아산시	농촌뜨락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5	10,000	500	2
	아산시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협동조합	문화·예술	2017	15,000	600	4
	아산시	라온교육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아산시	아산꿈나무마을교육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아산시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림·어업	2015	15,000	800	3
	아산시	가온사회복지협동조합	노인돌봄	2017	16,000	800	5
	아산시	나누어드림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12,000	900	3
	아산시	아산문화협동조합	문화·예술	2017	10,000	1,200	7
	천안시	폰테뮤직협동조합	문화·예술	2015	10,000	2,000	1
	천안시	천안서점협동조합	도·소매및 숙박	2014	10,000	1,500	0
	천안시	에이스콜밴협동조합	운송/운수 서비스	2016	10,000	1,000	3

부록 3.

1억 이상 5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대상 사회적가치 유형 분류

1) 2억 이상 2억원 미만 매출 협동조합 리스트임(32개)

표 72. 2억 이상 5억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유형 분류

가치	도농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 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공간인 프라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북건설기계 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8	38,400	768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청포대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30,000	600	1
	도시형	아산시	에이스건축기공 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3	30,000	1,800	3
	도농복 합형	태안군	참마음스스로해변학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6,000	520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울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7	20,000	400	2
다문화	도농복 합형	예산군	아시아푸드마트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28,000	0	6
대안농 업	도시형	아산시	풀담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25,000	810	6
	농촌형	금산군	홍삼전문제조마스터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5	25,000	500	1
	농촌형	서천군	장항나루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4,500	2,005	7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이소어업인 사회적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6	21,000	600	4
	농촌형	부여군	으뜸버섯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8	20,000	200	1
사회적 경제설 립	농촌형	서천군	두리하나협동조합	예식업	2013	36,080	482	5
	도시형	천안시	드론군단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7	36,000	-4,000	3
	도농복 합형	보령시	충남전세버스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4	31,050	350	7
	도시형	아산시	한국진돗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20,000	800	2
지역서 비스	도시형	아산시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4	45,000	1,200	30
	농촌형	금산군	은성관광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5	43,200	432	12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블루	문화·예 술	2017	42,000	2,100	4
	도농복 합형	서산시	대한숲해설가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40,000	200	12
	도시형	천안시	피알(PR)마케팅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7	38,200	-500	3

가치	도농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 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 고랑이랑	농·림·어 업	2014	37,000	1,200	9
	농촌형	서천군	두리하나협동조합	예식업	2013	36,080	482	5
	도시형	천안시	드론군단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7	36,000	-4,000	3
	농촌형	부여군	한화고속관광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5	32,400	400	9
	도농복 합형	보령시	충남전세버스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4	31,050	350	7
	도농복 합형	태안군	태원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5	30,000	300	8
	도시형	아산시	에이스건축기공 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3	30,000	1,800	3
	농촌형	부여군	부여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교육	2015	27,000	790	4
	농촌형	서천군	장항나루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4,500	2,005	7
	농촌형	서천군	모시촌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7	23,800	1,500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태안반도투어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2	22,000	220	7
지역일 자리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공주학교급식 농축산물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6	45,000	2,200	0
	도시형	천안시	천안북면 도란도란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4	42,000	-4,500	20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블루	문화·예 술	2017	42,000	2,100	4
	도농복 합형	서산시	대한숲해설가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40,000	200	12
	도시형	천안시	피알(PR)마케팅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7	38,200	-500	3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 고랑이랑	농·림·어 업	2014	37,000	1,200	9
	농촌형	서천군	두리하나협동조합	예식업	2013	36,080	482	5
	도시형	아산시	씨엠티 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5	36,000	700	2
	도농복 합형	보령시	충남전세버스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4	31,050	350	7
	도농복 합형	태안군	태원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5	30,000	300	8
	도농복 합형	예산군	아시안푸드마트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28,000	0	6
	도농복 합형	공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세움	교육	2016	27,000	13,000	12
	도농복 합형	태안군	참마음스스로해변학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6,000	520	1
	도시형	아산시	풀담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25,000	810	6
농촌형	금산군	홍삼전문제조마스터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5	25,000	500	1	

가치	도농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 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농촌형	서천군	장항나루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24,500	2,005	7
	농촌형	서천군	모시촌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7	23,800	1,500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이스어업인 사회적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6	21,000	600	4
	도농복 합형	태안군	울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7	20,000	400	2
	도시형	아산시	한국진돗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20,000	800	2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북이원희망 협동조합	보건·환 경	2014	20,000	1,800	7
	도시형	아산시	엔케이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4	20,000	400	2
취약서 비스	도시형	아산시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4	45,000	1,200	30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공주학교급식 농축산물생산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6	45,000	2,200	0
	도시형	천안시	천안북면 도란도란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4	42,000	-4,500	20
	도농복 합형	공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세움	교육	2016	27,000	13,000	12
	농촌형	부여군	부여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교육	2015	27,000	790	4
취약자 립	도시형	아산시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4	45,000	1,200	30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북건설기계 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8	38,400	768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청포대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3	30,000	600	1
	도농복 합형	태안군	태안반도투어 협동조합	관광·오 락	2012	22,000	220	7
	도농복 합형	태안군	원북이원희망 협동조합	보건·환 경	2014	20,000	1,800	7
환경보 존	도시형	아산시	엔케이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4	20,000	400	2

2) 1억 이상 2억원 미만 매출 협동조합 리스트임(47개)

표 73. 1억 이상 2억원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유형 유형

가치	도농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 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공간 인프라	도농복 합형	서산시	에스그린 협동조합	보건·환 경	2016	19,000	2,130	7
	농촌형	금산군	한국기계전기 산업협동조합	제조(기 타)	2016	15,000	1,200	1
	농촌형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농·림·어 업	2013	14,500	300	1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대안 농업	도농복 합형	태안군	청포아일랜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9,200	540	3
	도농복 합형	태안군	한국특농선양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8,000	2,000	2
	농촌형	논산시	논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물류시스템구축	농·림·어 업	2017	15,000	4,000	2
	도농복 합형	서산시	운산하우스달래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7	15,000	3,000	1
	도농복 합형	서산시	충남한우유통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3	15,000	2,200	1
	농촌형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농·림·어 업	2013	14,500	300	1
	도농복 합형	서산시	네이처팜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5	14,000	140	5
	도농복 합형	당진시	솔미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14,000	-5,000	3
	도농복 합형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6	13,000	130	1
	농촌형	금산군	기쁜우리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2,000	1,000	2
	도농복 합형	서산시	서산동부전통시장 갯마을협동조합 장터쌈지찬	도·소매 및 숙박	2015	12,000	500	1
	도농복 합형	서산시	참농인삼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3	12,000	1,000	5
	농촌형	금산군	천지현홍삼흑삼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0,000	700	3
	도농복 합형	예산군	충남농식품 유통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0,000	120	3
	농촌형	계룡시	계룡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8	10,000	2,000	1
	농촌형	금산군	천부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7	10,000	400	3
대안 에너지	농촌형	금산군	한국기계전기 산업협동조합	제조(기 타)	2016	15,000	1,200	1
사회 적경 제설 립	농촌형	논산시	한국농기계유통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6	17,000	1,700	2
	농촌형	홍성군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의료서 비스	2015	15,400	3,010	7
	도시형	아산시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7	15,000	600	4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시산림토석업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4,500	350	0
	도농복 합형	보령시	살렘마을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8	14,000	500	8
	도시형	아산시	라온교육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2,500	630	7
	도농복	보령시	세움협동조합	교육	2015	11,250	750	1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지역 서비스	합형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화원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7	10,500	-50	0
	도시형	천안시	천안서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0,000	1,500	0
	농촌형	금산군	천부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7	10,000	400	3
	농촌형	논산시	한국농기계유통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6	17,000	1,700	2
	도시형	아산시	가온사회복지 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7	16,000	800	5
	도농복 합형	공주시	자연의소리 사회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6,000	500	3
	농촌형	홍성군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의료서 비스	2015	15,400	3,010	7
	도농복 합형	예산군	충남주거복지센터	건설/건 축	2014	15,000	1,000	2
	도시형	아산시	한국상당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6	15,000	450	5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 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15,000	4,000	4
	농촌형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농·림·어 업	2013	14,500	300	1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시산림토석업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4,500	350	0
	도시형	아산시	아산꿈나무마을교육 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도시형	아산시	라온교육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2,500	630	7
	도농복 합형	공주시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12,189	1,129	11
	도농복 합형	보령시	세움협동조합	교육	2015	11,250	750	1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화원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7	10,500	-50	0
	도시형	천안시	천안서점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0,000	1,500	0
	농촌형	계룡시	계룡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 생	2018	10,000	2,000	1
	도농복 합형	당진시	당진시대방송미디어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8	10,000	700	2
	도시형	아산시	아산문화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7	10,000	1,200	7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 와트	문화·예 술	2018	10,000	400	5
	도시형	아산시	WIMDESIGN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3	10,000	410	4
	도시형	천안시	폰테뮤직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0,000	2,000	1
	도시형	천안시	에이스콜밴 협동조합	운송/운	2016	10,000	1,000	3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수 서비스				
지역 일자리	도농복 합형	서산시	에스그린 협동조합	보건·환 경	2016	19,000	2,130	7
	도농복 합형	태안군	한국특농선양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8,000	2,000	2
	농촌형	홍성군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의료서 비스	2015	15,400	3,010	7
	농촌형	논산시	논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물류시스템구축	농·림·어 업	2017	15,000	4,000	2
	도농복 합형	서산시	운산하우스달래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7	15,000	3,000	1
	도농복 합형	서산시	충남한우유통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3	15,000	2,200	1
	도시형	아산시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5	15,000	800	3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 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8	15,000	4,000	4
	도시형	아산시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7	15,000	600	4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시산림토석업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4,500	350	0
	도농복 합형	서산시	네이처팜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5	14,000	140	5
	도농복 합형	당진시	슬외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14,000	-5,000	3
	도농복 합형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6	13,000	130	1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고마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6	12,500	-800	5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2,500	630	7
	도농복 합형	공주시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7	12,189	1,129	11
	농촌형	금산군	기쁜우리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2,000	1,000	2
	도농복 합형	서산시	서산동부전통시장 갯마을협동조합 장터쌈지찬	도·소매 및 숙박	2015	12,000	500	1
	도시형	아산시	나누어드림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2,000	900	3
	도농복 합형	태안군	카진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8	12,000	-1,000	2
	도농복 합형	서산시	참농인삼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3	12,000	1,000	5
	도농복 합형	보령시	세움협동조합	교육	2015	11,250	750	1
	도농복 합형	보령시	보령화원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7	10,500	-50	0
	농촌형	금산군	천지현홍삼흑삼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4	10,000	700	3
	도시형	아산시	농촌뜨락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0,000	500	2
도농복	예산군	충남농식품	도·소매	2014	10,000	120	3	

가치	분류	소재지	기업명	주 사업분야	설립 연도	매출 (만원)	영업이익 (만원)	고용
	합형		유통협동조합	및 숙박				
	도농복 합형	당진시	당진시대방송미디어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8	10,000	700	2
	도시형	천안시	에이스콜밴 협동조합	운송/운 수 서비스	2016	10,000	1,000	3
	도시형	아산시	아랑두림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5	10,000	400	3
	농촌형	금산군	천부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7	10,000	400	3
취약 서비스	도시형	아산시	가온사회복지 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7	16,000	800	5
	도농복 합형	공주시	자연의소리 사회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6,000	500	3
	도농복 합형	예산군	충남주거복지센터	건설/건 축	2014	15,000	1,000	2
	도시형	아산시	한국상당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6	15,000	450	5
	도시형	아산시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림·어 업	2015	15,000	800	3
	도농복 합형	보령시	살렘마을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8	14,000	500	8
	도시형	아산시	아산꿈나무마을교육 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도시형	아산시	라온교육협동조합	교육	2014	13,000	650	6
	도농복 합형	공주시	고마협동조합	노인돌 봄	2016	12,500	-800	5
	도시형	아산시	나누어드림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2,000	900	3
	도시형	아산시	아산문화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7	10,000	1,200	7
	도시형	아산시	협동조합 와트	문화·예 술	2018	10,000	400	5
	도시형	천안시	폰테뮤직 협동조합	문화·예 술	2015	10,000	2,000	1
취약 자립	도농복 합형	태안군	청포아일랜드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9,200	540	3
	도농복 합형	보령시	살렘마을 협동조합	제조(농 가공식 품)	2018	14,000	500	8
	도시형	아산시	나누어드림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4	12,000	900	3
	도시형	아산시	농촌뜨락 협동조합	도·소매 및 숙박	2015	10,000	500	2
	도시형	아산시	아랑두림 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5	10,000	400	3
환경 보존	도농복 합형	태안군	카진협동조합	전문, 과학, 기술	2018	12,000	-1,000	2